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 라이프니츠 『단자론』

윤선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철학사상』 별책 제3권 제13호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 라이프니츠 『단자론』

윤 선 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편집위원 : 백종현(위원장)  
이태수  
심재룡  
김남두  
김영정  
허남진  
윤선구(주간)

## 발 간 사

2002년 8월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 아래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 전임연구팀이 수행하고 있는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의 1차 년도 연구 결실을 지난해에 『철학사상』별책 제2권 전14호로 묶어낸 데 이어, 이제 제2차 년도 연구결과 총서를 별책 제3권으로 엮어 내며, 아울러 제2권 몇몇 호의 보정판을 함께 펴낸다.

박사 전임연구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서울대학교 철학사상 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의 연구팀은 우리 사회 문화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동서양 주요 철학 문현들의 내용을, 근간 개념들과 그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해설해 나가는 한편, 철학 지식 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우리 연구팀은 이 작업의 일차적 성과물로서 이 연구 총서를 펴냄과 아울러, 이것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여러 서양어 또는 한문으로 쓰여진 철학 고전의 텍스트들을 한국어 표준 판본이 확보되는 대로 이를 디지털화하여 상식인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각자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작업은 오늘날의 지식 정보 사회에 있어 철학이 지식 산업과 지식 경제의 토대가 되는 디지털 지식 자원을 생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 연구라 할 것이다.

우리 연구팀은 장시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중요한 동서양의 철학 고전들을 선정하고 이를 전문 연구가가 나누어 맡아, 우선 각자가 분담한 저작의 개요를 작성하고 이어서 저작의 골격을 이루

는 중심 개념들과 연관 개념들의 관계를 밝혀 개념위계도를 만든 후, 그 틀에 맞춰 주요 개념들의 의미를 상술했다. 이 같은 문헌 분석 작업만으로써도 대표적인 철학 저술의 독해 작업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획 사업은 이에서 더 나아가 이 작업의 성과물을 디지털화된 철학 텍스트들에 접목시켜 누구나 각자의 수준에서 철학 고전의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꼽는 철학 고전들은 모두 외국어나 한문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를 지식 자원으로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에 앞서 현대 한국어로의 번역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적절한 한국어 번역이 아직 없는 경우에도 원전의 사상을 이루는 개념 체계를 소상히 안다면 원전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우리 연구 작업의 성과는 우선은 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더욱이는 장차 한국어 철학 텍스트들이 확보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 연구 사업의 성과물이 인류 사회 문화의 교류를 증진시켜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높이고, 한국 사회 철학 문화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바 있기를 바란다.

2004년 5월 25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 센터장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연구책임자

백 종 현

『철학사상』별책 제3권 제13호

# 라이프니츠 『단자론』

윤 선 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 머 리 말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 스피노자와 함께 근대 합리론의 대표자이다. 그러나 근대 경험론의 대표자인 로크, 베클리, 흄 중에서 흄이 경험론의 완성자이 듯이 근대 합리론은 라이프니츠에게서 정점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라이프니츠가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실체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새롭고 체계적인 실체론인 단자론을 완성시켰기 때문만이 아니라, 현상 세계의 형이상학적 해명을 포함한 철학의 주요 문제들을 신의 실체 세계 창조 과정을 규명함으로서 해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논리학을 이용하여 신이 실체의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는지를 상세히 규명하면서 이 세계의 양대 법칙인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이 어떻게 신에게서 기원하는지를 해명하고 있다.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이 세계의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은 모두 신의 이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철학은 신의 입장에서의 선협 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후에 칸트는 인간의 오성과 이성의 입장에서의 선협 철학을 발전시켰는데, 그의 철학은 라이프니츠 철학으로부터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대 철학 전체에 대한 연구가 미약하기도 하지만, 특히 라이프니츠의 연구가 미약한 수준에 있다. 라이프니츠는 사상이 방대하고 심오하기도 하지만, 체계적인 저술이 거의 없고 많은 철학적 내용들이 단편이나 서간의 형태로 서술되어 있고, 언어도 라틴어와 불어로 되어 있어 원전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철학의 핵심적인 방법론은 모두 초기 중기의 단편이나 서간들에 서술되어 있고, 후기에 서술된 주요 저작인 『신인간오성론』, 『변신론』 및 『단자론』등은 이

방법론을 토대로 전개된 철학의 내용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라이프니츠의 철학 자체가 단자론으로 불릴 정도로 『단자론』은 그의 철학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지만, 이 책은 그 대신 너무 간략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저서는 이러한 국내의 철학계의 사정과 라이프니츠 저서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우선 라이프니츠의 철학에 대한 개요를 원전에 근거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본 저서는 또한 단순히 책으로 읽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컴퓨터,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되는 철학 지식 지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쓰여졌다. 그동안 단지 매체만 디지털화하던 ‘정보화’와는 달리 ‘지식화’는 문헌의 내용을 분석하여 컴퓨터를 통하여 체계적인 내용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 그리고 매체의 특성 상 상세한 지식보다는 간략하면서도 체계적이고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해설이나 논의는 다른 저서를 통해서 제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인터넷 시대의 지식화의 흐름을 타고, 그동안 뒤에 쳐져있던 라이프니츠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신속히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둘러 출작을 내어 놓는다.

2004년 6월 4일  
철학사상연구소에서 윤선구

# 목 차

제1부 『단자론』의 저자 및 작품 해제 .....	1
I. 라이프니츠의 생애 .....	1
II. 『단자론』 해제 .....	4
III. 『단자론』의 내용 체계 .....	11
1. 단자(단순한 실체)에 대하여 .....	11
2. 이성의 양대 원리와 진리에 대하여 .....	13
3. 신에 대하여 .....	14
4. 세계에 대하여 .....	15
5. 복합 실체에 대하여 .....	16
6. 정신과 신국에 대하여 .....	17
제2부 지식 지도 .....	19
I. 철학 문헌, 철학자, 철학 용어 지식 지도 .....	19
II. 『단자론』의 지식 지도 .....	25
1. 인식과 진리 .....	25
2. 신 .....	26
3. 단자 .....	26
4. 세계 (4-1/ ) .....	28
5. 복합 실체 (5-1/ ) .....	29

6. 신국 (6-1/ ) .....	29
제3부 『단자론』의 주요 주제어 분석 .....	31
1. 인식과 진리 .....	31
1.1. 인식 .....	31
1.1.1. 감각적 인식 .....	31
1.1.1.1. 동물의 감각적 인식 .....	31
1.1.1.1.1. 기억에 의한 인식 .....	31
1.1.1.1.2. 감각에 의한 인식 .....	32
1.1.1.1.2. 인간에게서의 감각적 인식 .....	32
1.1.2. 이성적 인식 .....	33
1.1.2.1. 이성적 인식의 정의 .....	33
1.1.2.2. 이성적 인식의 원리 .....	34
1.1.2.2.1. 모순율 .....	34
1.1.2.2.2. 충족 이유율 .....	35
1.2. 진리 .....	35
1.2.1. 진리의 구분 .....	35
1.2.1.1. 이성 진리 .....	36
1.2.1.2. 사실 진리 .....	37
1.2.2. 진리의 근거 .....	37
1.2.2.1. 이성 진리의 근거 .....	38
1.2.2.2. 사실 진리의 근거 .....	38

1.2.2.2.1. 사태의 무한 분할 가능성 .....	39
1.2.2.2.2. 사실 진리의 근거로서의 신 .....	40
2. 신 .....	40
2.1. 신의 본성 .....	40
2.1.1. 모든 사물의 최종 근거 .....	41
2.1.1.1. 우연적 존재의 최종 근거 .....	41
2.1.1.2. 모든 실재성의 최종 근거 .....	42
2.1.2. 가장 완전한 존재 .....	42
2.1.3. 근원적 실체 .....	44
2.1.4. 능력 .....	44
2.2. 신 존재 .....	45
2.2.1. 우연한 사물의 존재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 .....	45
2.2.1.1. 사실 진리와 우연적 사물의 존재 .....	45
2.2.1.2. 증명의 구조 .....	46
2.2.2. 영원한 진리의 실재성으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 .....	47
2.2.3. 존재론적 신 존재 증명 .....	49
2.2.3.1.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증명 비판 .....	49
2.2.3.2. 존재론적 증명의 구조 .....	49
3. 단자 .....	50
3.1. 단자의 의미 .....	50
3.1.1. 단순한 실체로서의 단자 .....	50
3.1.2. 복합실체의 근본 단위로서의 단자 .....	51

3.2. 단자의 특성 .....	52
3.2.1. 자연적 생성 소멸 불가능성 .....	52
3.2.1.1. 단자의 자연 소멸 불가능성 .....	52
3.2.1.2. 단자의 자연 생성 불가능성 .....	53
3.2.1.3. 단자의 생성 소멸 원리 .....	53
3.2.2. 상호 작용 불가능성 .....	53
3.2.3. 상호 구별의 가능성 .....	55
3.2.3.1. 성질 소유의 필연성 .....	55
3.2.3.2. 상호 구별의 원리 .....	55
3.2.3.3. 지각 .....	57
3.2.3.3.1. 단자들의 변화 내용 .....	57
3.2.3.3.2. 단일성 속의 다수성 .....	57
3.2.3.3.3. 데카르트 정신 실체 비판 .....	58
3.2.4. 변화 가능성 .....	59
3.2.4.1. 변화의 필연성 .....	59
3.2.4.2. 변화의 원리 .....	60
3.2.4.3. 욕구 .....	60
3.2.4.4. 지각 변화의 방식 .....	60
3.3. 단자의 종류 .....	61
3.3.1. 지각의 구분 .....	62
3.3.1.1. 미세 지각 .....	62
3.3.1.2. 감각을 동반하는 지각 .....	63
3.3.1.3. 통각을 동반하는 지각 .....	64

3.3.2. 명칭의 구분 .....	64
3.3.2.1. 엔텔레키 .....	64
3.3.2.2. 영혼 .....	65
3.3.2.3. 정신 .....	66
 4. 세계 .....	67
4.1. 단자들 간의 상호 관계 .....	68
4.1.1. 물리적 영향과 관념적 영향 .....	68
4.1.1.1. 물리적 영향 .....	68
4.1.1.2. 관념적 영향 .....	68
4.2. 능동과 수동 .....	69
4.2.1. 일상적 의미에서의 능동과 수동 .....	69
4.2.2. 관념적 영향에서의 능동과 수동 .....	70
4.3. 창조의 원리 .....	71
4.3.1. 가능성적 세계 .....	71
4.3.2. 선택의 원리 .....	71
4.3.2.1. 완전성에 따른 존재의 요구 .....	72
4.3.2.2. 선택의 기준 .....	72
4.4. 지각의 질서와 단자들의 질서 .....	73
4.4.1. 예정 조화 .....	73
4.4.1.1. 단자들 사이의 예정 조화 .....	74
4.4.1.2. 관념의 세계와 실재의 세계 사이의 대응 .....	75
4.4.1.3. 작용인이 왕국과 목적인의 왕국 사이의 조화 .....	75

4.4.2. 지각의 다양성 .....	76
4.4.2.1 단자의 배열 위치에 따른 다양성 .....	76
4.4.2.2. 단자의 완전성의 등급에 따른 다양성 .....	77
 5. 복합 실체 .....	78
5.1. 단자들의 존재 방식 .....	78
5.1.1. 창조된 단자들과 근원적 단자의 존재 방식 .....	78
5.1.1.1. 창조된 단자의 존재 방식 .....	78
5.1.1.2. 근원적 단자의 존재 방식 .....	79
5.1.2. 유기체와 무기체 .....	79
5.1.2.1. 유기체 .....	79
5.1.2.1.1. 생명체의 육체 .....	80
5.1.2.1.2. 신적인 기계 .....	80
5.1.2.1.3. 물고기로 가득찬 연못의 비유 .....	82
5.1.2.2. 무기체 .....	82
5.2. 생명체의 변화 .....	83
5.2.1. 변형론 .....	83
5.2.2. 변식 .....	85
5.2.3. 죽음의 부정 .....	86
5.3. 영혼과 육체 사이의 조화 .....	87
5.3.1. 심신 상호 관계에 대한 예정 조화론 .....	87
5.3.2. 심신 상호 작용설 비판 .....	88
 6. 신국 .....	89

6.1. 신국의 구성 .....	89
6.1.1. 신국 신민으로서의 이성을 가진 단자들 .....	89
6.1.2. 신국의 군주로서의 신 .....	91
6.1.3. 신국의 완전성 .....	91
6.1.3.1. 가장 완전한 통치 .....	91
6.1.3.2. 도덕의 왕국 .....	92
6.2. 신국의 정의로움 .....	93
6.2.1. 자연의 왕국과 신국 사이의 조화 .....	93
6.2.2. 자연적으로 실현되는 정의 .....	94
6.2.3. 가능한 최선의 세계 .....	95
참고문헌 .....	97

## 일·러·두·기

원문 인용에서 골호 안의 숫자는 『단자론』의 절을 나타낸다.

아직 한글 표준 번역판이 없어 원문은 필자가 직접 번역하였다.



## 제1부 『단자론』 의 저자 및 작품 해제

### I. 라이프니츠의 생애

라이프니츠는 30년 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1646년에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법률가이자 도덕 철학 교수인 아버지 프리드리히 라이프뉘츠와 명망 있는 법률가의 딸인 어머니 카테리나 슈무크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원래 라이프뉘츠(Leibnütz)였는데 나중에 자신이 라이프니츠로 고쳤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지만 많은 장서를 남겨 놓아 라이프니츠로 하여금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독학을 통하여 라틴어를 비롯하여 스콜라 철학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었다고 한다. 열두 살 때 이미 논리학의 문제에 대해 숙고하기 시작하여, 그 때부터 모든 문자가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인간의 사고를 구성하는 사유의 알파벳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열네 살의 나이에 라이프찌히 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조숙하였다.

그는 라이프찌히 대학에서 주로 철학에 관한 공부를 하였으며, 여기서 베이컨, 케플러, 갈릴레이 그리고 데카르트의 저술에 접하게 되었다. 1663년에 ‘개체의 원리에 관하여’라는 논문으로 학부를 마치고, 새로운 관심 때문에 예나 대학에 가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그리고 물리학자인 바이겔에게서 한 학기 동안 수에 의해 특징지어질 수 있는 세계의 조화에 관한 사상을 수강하였다. 라이프찌히로 돌아온 후 법학에 관심을 가지고 박사 과정에 진학하려 하였으나, 라이프찌히 대학은 그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뉘른베르크 근처에 있는 알트도

르프 대학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1667년에 ‘결합술에 관한 논고’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학위를 마친 후 알트도르프 대학의 교수직 제안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뉘른베르에서, 정신과 말, 그리고 기호로서의 로고스가 사물의 종합으로 파악된다고 하는 룰루스(Raimundus Lullus)의 위대한 기술인 황금십자단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황금십자단의 사무관으로 있었다. 그 후 보이네부르크 남작의 추천에 따라 「법학의 학습과 교육의 새 방법」이란 제목의 법률 문제 개혁에 관한 소논문을 마인츠의 선제후인 천보른 가의 필립에게 헌정하였다. 이에 대해 마인츠의 선제후는 라이프니츠에게 중세 교회법인 ‘코르푸스 유리스’를 개조하여 모든 기독교 국가의 공동 법전으로 만드는 작업을 맡겼다. 1668년부터 1672년까지 마인츠에 체류하는 동안 라이프니츠는 이 작업과 신구교의 기독교 종파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다가, 1672년에는 루이 14세로 하여금 이집트를 원정하도록 설득하려는 외교적 목적을 띠고 파리를 방문하여 1676년까지 체류하게 된다.

파리에서 라이프니츠의 외교적 사명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대신 그는 파리에 머물면서 니콜라스 르몽드, 호이겐스, 아노, 말브랑슈, 올덴부르크, 보일 및 뉴튼 등등과 같은 많은 학자들과 교류하게 된다. 그는 파리의 학자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자신이 물리학과 수학에 무지함을 깨닫고 수학의 연구에 열중함으로써 사칙을 연산할 수 있는 최초의 계산기를 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뉴튼과 독립적으로 미적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적분의 발견은 그의 말년을 오랫동안 뉴튼과의 표절 시비에 휘말리게 하였다. 원래 미적분은 뉴튼이 라이프니츠보다 먼저 발견하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독자적으로 미적분을 발견한 라이프니츠가 먼저 발표하자 뉴튼쪽에서 표절 시비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이 문제는 1712년 영국 왕립 협회가 뉴튼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끝났으나, 라이프니츠의 말년을 매우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는 또한 파리에서 철학적인 문제에도 몰두하여 1673년에 『철학자의 고백』을 저술하였다.

라이프니츠는 1676년부터 브라운슈바이크-뤼네부르크의 프리드리히 공작의 궁정 고문관 및 도서관 사서로 취직하게 된다. 그는 하노버로 가는 도중 런던과 암스테르담에 들러 현미경의 발명자인 뢰벤 혹과 스피노자를 만난다. 그와 스피노자 사이에는 한 두 차례 서신이 오가기도 하였지만, 위낙 사상이 서로 달랐던 까닭에 교류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이후 말년까지 약 40년간은 하노버 궁정의 고문관 및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팔츠의 엘리자베스의 자매이자 아우구스트 공작의 부인인 죠피(Sophie)와 그의 딸이자 후에 프로이센의 왕비가 되는 샤를로테와 깊은 우정을 맺게 된다. 특히 샤를로테와의 대화는 라이프니츠의 두 주저인 『변신론』과 『신인간오성론』을 집필하는 토대가 되었다. 하노버 궁정에 와서 처음에는 왕실에서 운영하는 하르쯔 광산에 풍력을 이용한 배수 시설을 설치하는 임무를 맡았다가 이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난 뒤 1685년부터는 왕실인 벨펜하우스가의 역사 를 서술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라이프니츠는 하노버 궁정의 위촉으로 마인츠 시절에 손 댅던 신구교의 종파를 통합하려는 작업과 함께 복음주의 내의 종파를 결합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사료검증을 위해 남부 독일, 빈, 로마, 나폴리 등을 여행하면서 프로이센 아카데미, 제국 아카데미, 작센 아카데미, 러시아 아카데미 등을 설립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700년에 프로이센의 아카데미가 설립되어 종신원장으로 취임하였으나, 개관식에는 참석하지 못하였다. 제국 아카데미와 작센 아카데미는 재정 문제로 설립되지 못하였고, 러시아 아카데미는 그가

죽은 후에 설립되었다. 또 라이프니츠는 벨펜 가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차 로마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예수회의 중국 선교사들을 만나 중국에 관심을 갖고 중국과의 학술 교환 및 중국에 대한 개신교 선교를 계획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 저술로 『신중국학』을 저술할 만큼 말년에 중국학의 연구에 몰두하였다. 또한 이탈리아에서, 하르쯔 광산과 베스비우스 화산 및 플레그라 벌판 등 이탈리아의 갱에서 나온 물질들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지구의 자연사인 『프로토게아』(Protogaea)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1714년에 그가 섬기던 하노버의 게오르그 루드비히가 조지1세가 되어 영국의 왕으로 등극하였으나, 라이프니츠는 하노버에 남아 쓸쓸히 말년을 지내다 1716년 11월 14일에 세상을 떠났다.

## II. 『단자론』 해제

『단자론』은 라이프니츠 생애의 말년에 해당하는 1714년에 저술되었는데, 이 책은 1672년 초에서부터 1676년 초까지 그의 파리 체류 기간 동안에 알게 된 니콜라스 르몽드(Nicolas Remond)와 아노(Arnauld) 등 당대의 지식인들에게 자기 사상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같은 해에 쓰여진 『자연과 은총의 이성적 원리』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책은 철학자가 아닌 일반인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언어로 서술되어 있으나, 『단자론』은 철학자들의 비롯한 지식인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다소 난해한 문체로 되어 있다. 1737년에 코에텐스(J. Koethens)가 ‘오이겐공에게 헌정된 형이상학적 테제’라는 제목으로 『단자론』의 라틴어 판본을 출판한 이래 이 책은 사보이의 오이겐 공에게 헌정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1885년에 라이프니츠 전집을 편찬한 게르하르트(Gerhardt)는

오이겐 공에게 헌정된 책은 『단자론』이 아니라 『자연과 은총의 이성적 원리』임을 밝혀냈다. ‘단자론’이란 책의 제목도 원래 라이프니츠가 붙인 이름이 아니다. 하노버의 주립 도서관에 소장된 수고에는 아무런 제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비인의 국립 도서관에 소장된 4번째 필사본에는 ‘라이프니츠씨에 의한 철학의 원리’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단자론』이란 제목은 1720년에 예나의 자연법 학자인 하인리히 켈러(Heinrich Koehler)의 독일어판으로부터 기인한다.

『단자론』은 새로운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산만하게 주장해왔던 그의 형이상학을 자신의 논쟁 상대인 지식인들에게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졌는데, 그의 다양한 철학적 주제들 중에서도 특히 당시에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던 심신 상호 관계 문제와 변신론의 주요 부분인 이 세계가 가능한 최선의 세계라는 것을 실체론을 토대로 해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단자론』은 라이프니츠 형이상학의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당시 철학의 일반적 방법은 실체를 토대로 현상세계의 문제들 및 철학적 문제들을 해명하는 것이었다. 데카르트는 이를 위해 정신과 물체라는 이원적 실체를 제시하였고, 스피노자는 신, 즉 자연이 유일한 실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데카르트가 이러한 실체론을 엄밀하고 확실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방법적 회의와 이를 통한 나의 존재로부터 그의 형이상학을 전개시켜나가는 데 반해, 라이프니츠는 스피노자가 그의 『윤리학』을 실체 개념의 분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 개념의 논의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라이프니츠의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에는 데카르트의 ‘철학의 제일원리’인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고 있다. 라이프니츠는 1704년에 쓴 『신인간오성론』에서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최

초의 경험’이라고 하면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를 최초로 확실한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의 존재는 확실하고 나는 실체이므로, 실체 개념에서 출발한 스피노자가 실체의 존재 증명을 해야 했던 것과는 달리, 라이프니츠에게서는 실체 존재의 증명이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즉 라이프니츠는 실체의 존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 라이프니츠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단자론』을 전개하고 있다.

『단자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대 철학의 근본적인 입장을 이해하여야 한다. 근대 철학자들, 특히 합리론자들은 철학의 모든 문제를 실체를 토대로 설명하고자 하는 특징 외에도 지각되는 것을 실재가 아니라 관념 내지는 현상이라고 보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일반인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들이 우리 정신 외부에 실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마치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이 무반성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체의 세계 즉 정신 외부의 세계는 우리 지각에 나타나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다. 특히 현상과 실재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이 물체의 본성에 관한 것이었다. 데카르트나 로크는 물체가 지각에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단지 현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외부, 즉 실재 세계에 물체가 실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베클리나 헤겔 같은 일부 절대적 관념론자들은 물체는 단지 정신 안에 있는 관념일뿐 정신 외부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베클리에 의하면 우리 정신 안에 있는 물체의 관념은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물체가 정신 안에 존재하는 관념이기는 하지만, 정신의 외부 실재세계에는 물체에 상응하

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실체인 단자들의 집적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라이프니츠가 종종 이러한 비물질적 실체의 집적체에 물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가 데카르트나 로크와 같이 물체의 실체성을 인정하는 실체 이원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물질적인 실체가 집적된다고 물질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어의 혼돈은 라이프니츠의 부주의에도 기인하지만, 그가 『형이상학 논고』 27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코페르니쿠스주의자들이 지구가 도는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태양이 뜨고 진다”라고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임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즉 라이프니츠는 유비적인 의미에서만 단자들의 집적체를 물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단자론』의 주요 내용은 먼저 근본이 되는 실체인 단자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단자들 중에 이성을 가진 단자인 정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인식의 원리를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신 존재 증명을 한다. 그 다음에는 신에 의한 창조를 통하여 단자들의 집합으로서의 세계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현상 세계에서의 생명체라고 불리는 것이 실체 세계에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해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을 가진 단자인 정신들로 이루어지는 도덕적 세계의 원리를 해명한다.

라이프니츠에게서 실체는 개체이다. 데카르트의 실체는 물체일 뿐 또는 정신 일반이지 개체가 아니며, 스피노자에게서도 총체로서의 자연만이 유일한 실체이기 때문에 개체는 실체가 아니라 실체의 양태로 간주된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의 실체는 개별자이다. 이것은 집합적 존재에 대하여 그 개별적 구성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모두가 서로 구별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라

이프니츠의 실체는 각각이 서로 구별되는 존재들이다. 이러한 실체를 라이프니츠는 ‘개체적 실체’(substance individuelle)라고 하는데, 그의 중기 저작에서는 이 용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단자’라는 용어는 그리스어에서 하나를 의미하는 모나스(monas)에서 온 말인데, 라이프니츠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1694경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이프니츠는 ‘단순한 실체’(substance simple)를 단자라고 부르는데, 단순하다는 의미도 복합된 것에 대해서 복합되지 않은 것, 즉 분할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복합된 것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라이프니츠가 즐겨 쓰는 실체의 이름은 서로가 구별되는 개체라는 의미와 더 이상 분할 할 수 없는 단순한 것이라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체적 실체’에서는 구별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단순한 실체’에서는 분할 할 수 없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영혼 또는 엔텔레키가 그가 자신의 실체를 지칭하기 위하여 즐겨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단순한 실체인 단자들은 무수히 많고 자연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오로지 신의 창조나 파괴를 통해서만 생성되고 소멸된다. 모든 단자들의 서로 구별되고 어느 둘도 결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단자들은 각자를 구별할 수 있는 원리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단자는 단순하여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구별을 할 수 없고 내적 성질을 통해서만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내적 성질을 지각이라고 부른다. 또한 단자들은 운동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운동의 원리를 통하여 지각을 매순간 변화시켜 간다. 이 운동의 내적 원리를 욕구라고 한다. 라이프니츠는 ‘지각’과 이를 변화시키는 능동적 힘인 ‘욕구’를 실체의 속성으로 간주한다. 모든 실체는 외부 세계와는 독립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고 이 지각은 실체 내의 자발적인 힘인 욕구에 의해 연속적으로 변하는 데, 미래에 변화될 모든 지각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실체의 내부에 처음부터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실체들은 신과 같이 지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즉 이성적 실체의 지각인 내적 상태의 변화는 신에 의해 조종되는 것이 아니라 실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변화된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정신뿐만 아니라, 동물의 영혼 및 이 보다 열등한 상태의 영혼들도 실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지각의 명식성 정도에 따라 무한히 다양한 등급의 비연장적 실체가 가능하다.

단순 실체를 설명한 다음에 라이프니츠는 인식의 종류와 원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것은 신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성을 가진 단자들은 사실 진리와 이성 진리 또는 우연적 진리와 필연적 진리의 두 가지 종류의 인식이 가능하다. 인간은 이성적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그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신에 대한 인식에 도달한다. 그러나 두 가지 종류의 인식 인식 모두 그것이 가능하려면 모순율과 충족 이유율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모든 명제는 그것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모순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충족 이유율에 따라 충분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 이성 진리의 근거는 동일 명제이다. 이성 진리는 분석을 통하여 동일 명제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 진리는 분석을 통하여 동일 명제로 환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명제가 진리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 라이프니츠는 이로부터 신 존재를 증명한다. 사실진리는 사실에 관한 주장의 진리이고 어떤 사실의 충분한 이유는 사실 그 자체나 사실의 계열 안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실 진리의 근거는 그 계열 외부에 존재해야 하고 그것이

신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는 단자들의 집합으로서의 세계 창조 원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개별 실체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외부세계와 독립적으로 전개될 실체의 지각이 실제의 외부 세계와 매 순간 상응해야 하므로, 신은 무수히 많은 실체들에 있어서 모든 미래 순간들의 내부 지각을 전지한 능력을 통해 예견하고, 각 실체들의 공간적 배열이 그들의 내부 지각과 상응하는 실체들, 즉 공존 가능한 실체들에 대한 관념들만을 모아 자신의 정신 안에 가능적 세계를 구성한다. 따라서 각 실체의 내부 지각의 변화와 외부 모나드들의 배열 사이에는 예정 조화가 이루어진다. 가능적 실체의 수는 무수히 많으므로, 이러한 실체들 중에서 공존 가능한 실체들의 관념들끼리만 모은 ‘가능적 세계’ 또한 무수히 많다. 신은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이들 가능적 세계들 중에서 최선의 세계, 즉 가장 많은 수의 실체를 포함하면서도 이들을 차별하는 법칙은 가장 단순한 세계를 선택하여 실재를 부여한다. 이것이 라이프니츠의 창조 이론이다.

우주에는 물체가 실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다양한 등급의 영혼과 같은 비물질적 실체들로 충만해 있다. 이들이 단자들이다. 물체란 실체가 아니며 영혼적 실체의 지각 안에만 존재하는 관념이다. 그런데 존재하는 실체들은 근원적 실체인 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의 우월한 실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일군의 열등한 실체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존재한다. 이 때 우월한 실체는 통속적으로 ‘영혼’이라 불리며, 이를 둘러싸고 있는 열등한 실체들의 집합이 ‘육체’라 불리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스피노자와 마찬가지로 통상 비유기체로 간주되는 무생물들도 영혼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실체의 내적 상태인 지각은 외부 세계와 상호 작용하지 않지만 외부 세계에 상응하도록 신에 의해 미리 조정되어 있다. 이 때 우월한 한 실체를 둘러싸고 있는 열등한 모나드들

의 집합이 유한한 실체들의 지각에는 물체로 나타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이프니츠는 이성을 가진 단자인 정신들의 특수한 지위에 대하여 설명한다. 전능한 신은 우주를 완벽한 통일 법칙에 따라 운행되는 자연의 왕국으로 창조하였다. 이러한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이며, 그의 창조주인 신은 기계 제작자이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히 선한 존재인 신은 우주를 단순히 기계로 창조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 안에 존재하는 이성적 존재자들과 은총의 왕국을 구성한다. 이것은 자연 왕국의 질서가 은총의 왕국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서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은총의 왕국의 건설자로서의 신을 라이프니츠는 그의 백성들을 자율적인 원리에 따라 통치하는 계몽 군주로 비유한다. 이러한 은총의 왕국이 바로 신국이다. 자연의 왕국으로서 우주의 창조 목적은 그것의 완전성이지만, 은총의 왕국으로서의 우주 창조 목적은 신국 백성들의 행복이다. 그런데 이 행복은 각각의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그들의 도덕성에 정비례하여 주어질 때에만 정의롭게 되므로 정의로운 신은 인간에게 도덕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유를 부여한다. 그러나 실제로 지나간 일을 보면 의지의 자유가 때로는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신이 더 큰 완전성을 위하여 전체를 고려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정신이 의욕하는 것을 모두 실현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모든 것을 가장 정의롭고 완전하게 통치하며 신국은 가장 완전한 국가이다.

### III. 『단자론』의 내용 체계

#### 1. 단자(단순한 실체)에 대하여

- (1) 단자의 정의 : 단자는 단순한 실체임
- (2) 단자의 존재 : 복합적인 것이 존재하므로 단순한 것도 존재

해야 함

(3) 단자의 특성에 대하여

- 1) 단자의 생성 및 소멸에 대하여
  - a. 단자는 자연 과정에서 소멸하지 않음
  - b. 단자는 자연 과정에서 생성되지 않음
- 2) 단자들은 상호 작용하거나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음
- 3) 단자들의 구별 원리에 대하여
  - a. 단자들은 고유한 성질을 가져야 함
  - b. 모든 단자들의 성질은 서로 동일하지 않음
- 4) 단자들의 변화 원리에 대하여
  - a. 모든 단자들은 연속적으로 변화함
  - b. 단자의 변화는 내적인 원리들을 통하여 일어남
  - c. 단자의 내적인 변화의 원리를 욕구라고 함
- 5) 단자들의 내적 상태에 대하여
  - a.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것의 특수성이 존재해야함
  - b. 이것은 단순성 속의 다수성으로 나타남
  - c. 변화하는 단자의 내적 상태를 지각이라고 함
  - d. 지각은 역학적인 근거로부터 설명되어질 수 없음

(4) 단자들의 종류에 대하여

- 1) 지각과 욕구를 갖는 모든 존재는 영혼이라고 불릴 수 있음
- 2) 그러나 감각을 갖는 단자들만을 영혼이라고 부르기로 함
- 3) 감각없이 단순히 지각만 갖는 단자들은 엔텔레키라고 불릴 수 있음

## (5) 미세 지각에 대하여

- 1) 감각을 갖는 영혼도 깊은 수면 상태에서는 지각을 의식하지 못함
- 2) 그러나 지각은 연속적이어야 하므로 수면 상태에서도 지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 3) 엔텔레키의 지각은 의식되지 않음
- 4) 그러나 단자가 지각을 갖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며, 엔텔레키들은 의식되지 않는 미세 지각을 가짐

**2. 이성의 양대 원리와 진리에 대하여**

## (1) 기억에 의한 인식과 이성에 의한 인식

- 1) 감각이 가능한 동물은 기억을 통하여 사물을 인식함
- 2) 인간은 이성을 통하여 사물을 인식할 수 있음

## (2) 이성의 인식은 모순율과 충족 이유율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 1) 모순률에 의거하여 모순을 포함한 것은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함
- 2) 충족 이유율에 의거하여 충분한 근거가 없이는 어떠한 사실이나 명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또는 진리인 것으로 입증될 수 없음

## (3) 진리의 종류에는 이성 진리와 사실 진리의 두 종류가 있음

- 1) 이성 진리와 사실 진리의 정의
  - a. 이성 진리는 필연적이고, 그 반대는 모순을 포함함
  - b. 사실진리는 우연적이고 그 반대가 가능함
- 2) 이성 진리와 사실 진리의 근거
  - a. 이성진리는 모순율에 근거하며, 주어의 분석을 통하여 동일 명제로 환원될 수 있음

- b. 사실진리는 그 근거로의 분석이 무한히 계속되어 동일 명제로 환원되지 않지만, 충족 이율에 따라 근거를 가져야 하며, 이 근거는 신임

### 3. 신에 대하여

#### (1) 신의 본성에 대하여

- 1) 신외에 신을 제한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은 무제약적임
- 2) 따라서 신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임
- 3) 모든 피조물의 완전성은 신으로부터 나옴
- 4) 신은 존재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신의 오성의 본질의 근거임

#### (2) 영원한 진리에 의한 신의 존재 증명

- 1) 영원한 진리는 실재성을 가지고 있음
- 2) 영원한 진리의 실재성은 존재하는 것, 즉 필연적 존재 안에 그 근거를 가져야 함
- 3) 따라서 필연적 존재는 그것이 가능하면 존재해야 함
- 4) 필연적 존재의 가능성은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음
- 5) 따라서 신은 존재함

#### (3) 신의 능력에 대하여

- 1) 신은 근원적 단자이고, 모든 파생적 단자들은 신으로부터 매 순간 끊임없는 분출을 통하여 생성됨
- 2) 신은 능력과 인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들은 모두 무한함

## 4. 세계에 대하여

### (1) 단자 간의 관계

#### 1) 능동과 수동의 의미

- a. 한 단자가 판명한 지각을 가지고 있으면 능동성을 부여하고, 혼돈된 지각을 가지고 있으면 수동성을 부여함
- b. 우리가 어떤 것 안에서 다른 것 안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선형적으로 발견하면 그것이 다른 것보다 더 완전함

#### 2) 신의 매개를 통한 단자들 간의 영향

- a. 단자들 간에는 관념적 영향만이 가능하고 물리적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b. 단자들 간에는 신의 매개를 통해서만 영향이 가능함

#### 3) 단자들 간의 능동과 수동은 상호적이며, 신의 매개로 해서 작용됨

### (2) 신의 선택 원리

- 1) 신의 오성 안에는 무한히 많은 가능성 세계가 존재하므로, 선택의 기준이 존재해야 함
- 2) 신의 선택 기준은 가능성 세계가 가진 완전성의 정도임
- 3) 신의 지혜가 가장 완전한 세계를 인식하고, 신의 선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의 능력이 그것을 창조함

### (3) 단자 세계의 조화와 지각

- 1) 신의 예정 조화를 통하여 단자들은 다른 단자들 전체를 표현하는 관계를 가지게 됨
- 2) 따라서 모든 단자는 세계를 표현하는 살아있는 거울임

3) 모든 단자는 동일한 우주를 각자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함

(4) 단자 세계의 질서와 신의 위대성

1) 이와 같이 하여 신은 가능한 한 가장 완전한 세계를 창조함

2) 이를 통하여 신의 위대함이 드러남

3) 신이 전체의 질서를 부여함에 있어 모든 개별적 단자들을 고려함으로써 각 단자들은 전 우주를 표현하게 됨

## 5. 복합 실체에 대하여

(1) 복합 실체와 단순 실체의 우주 표상 방식

1) 물체는 자신과 직접 접촉해 있는 것을 직접 느끼지만, 우주는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물체를 매개로 전 우주를 느낄 수 있음

2) 영혼은 자신에게 속한 육체를 표상하고 이를 매개로 전 우주를 표상함

(2) 생명체

1) 육체는 엔텔레키와 결합하여 생명체를 이루고, 영혼과 결합하여 동물을 이룸

2) 모든 생명체의 육체는 자연적인 자동 기계임

3) 모든 개체는 생명체이고, 이 생명체의 각 지체는 또 생명체와 같이 엔텔레키와 육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관계는 무한히 계속됨

4) 따라서 우주는 생명체로 가득 차 있음

(3) 영혼 불멸론

- 1) 그러나 한 영혼에 배속하는 육체는 영구히 배속되지 않음
- 2) 영혼은 그의 육체를 끊임없이 서서히 바꿈
- 3) 영혼은 육체를 바꾸기는 하지만, 결코 육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며 따라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음
- 4) 정충 속에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함께 들어 있고, 수태는 정충이 큰 동물로 변화하는 계기에 불과함

(4) 심신 상호 관계

- 1) 영혼은 육체가 없는 것처럼 작용하고, 육체는 영혼이 없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작용함
- 2) 영혼과 육체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신에 의한 예정 조화를 통하여 마치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합치됨

## 6. 정신과 신국에 대하여

(1) 정신의 특징

- 1) 정신은 이성을 가짐으로서 다른 단자들과 구별됨
- 2) 정신은 우주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신의 모사임
- 3) 정신은 우주를 인식할 수 있고, 우주의 체계를 모방 할 수 있는 작은 신임

(2) 신국의 구성에 대하여

- 1) 정신은 신과 더불어 공동체를 구성함
- 2) 정신들과 신의 관계는 기계와 그 제작자가 아니라, 신민과 군주 또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임
- 3) 신국은 가장 완전한 군주를 가진 가장 완전한 국가임
- 4) 신국은 자연적 세계 안에 있는 도덕적인 세계임

(3) 신국과 자연의 왕국 사이의 조화

- 1) 물리적인 자연의 왕국과 도덕적인 은총의 왕국 사이에는 예정 조화가 성립됨
- 2) 이 조화는 자연의 경과를 통하여 은총에 이르도록 함

(4) 신국의 완전한 통치에 대하여

- 1) 신국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선행 행위도, 벌을 받지 않는 악한 행위도 존재하지 않음
- 2) 신국은 정의롭고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함
  - a. 신민들은 신의 선행하는 의지에 따르기 위해 노력함
  - b. 소망했던 일이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 후속하는 의지에 합당한 것임을 이해함

## 제2부 지식 지도

### I. 철학 문헌, 철학자, 철학 용어 지식 지도

#### ○ 철학 문헌 : 『단자론』

원전의 전체 내용 요약 : 『단자론』의 주요 내용은 먼저 근본이 되는 실체인 단자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단자를 중에 이성을 가진 단자인 정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인식의 원리를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신 존재 증명을 한다. 그 다음에는 신에 의한 창조를 통하여 단자들의 집합으로서의 세계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현상 세계에서의 생명체라고 불리는 것이 실체 세계에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해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을 가진 단자인 정신들로 이루어지는 도덕적 세계의 원리를 해명한다.

원전의 세부 내용 목차 : 1-3

원전의 중요성 해설 : 『단자론』은 새로운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산만하게 주장해왔던 그의 형이상학을 자신의 논쟁 상대인 지식인들에게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졌는데, 그의 다양한 철학적 주제들 중에서도 특히 당시에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던 심신 상호 관계 문제와 변신론의 주요 부분인 이 세계가 가능한 최선의 세계라는 것을 실체론을 토대로 해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단자론』은 라이프니츠 형이상학의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원전의 중요한 철학 용어 : 실체, 인식, 진리, 신, 세계, 정신, 지각

영어 표준 번역본 제목 : THE MONADOLEGY

영어 표준 번역본 번역자 : L. E. Loemker

영어 표준 번역본 출판 도시 : Boston

영어 표준 번역본 출판사 : D. Reidel Publishing Company

영어 표준 번역본 출판 연도 : 1956

영어 디지털 텍스트 :

<http://oregonstate.edu/instruct/phl302/texts/leibniz/monadology.html>

원어 표준 판본 제목 : Die philosophischen Schriften

von Gottfried Wilhelm Leibniz

원어 표준 판본 편집자 : C. I. Gerhardt

원어 표준 판본 출판 도시 : Berlin

원어 표준 판본 출판사 : Georg Olms Verlagsbuchhandlung  
Hildesheim

원어 표준 판본 출판 연도 : 1960

원어 표준 판본 초판 출판 연도 : 1875-1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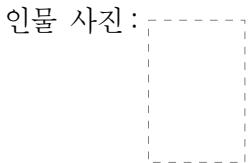
## ○ 철학자: 라이프니츠

생애 해설 : 1-1

한국어 이름 : 라이프니츠

영어 이름 : Leibniz

원어 이름 : Gottfried Wilhelm Leibniz



출생 국가: 독일

출생 도시: 라이프찌히

출생 년도: 1646년

사망 년도: 1716년

주요 저작1 한국어 제목: 『형이상학논고』

주요 저작2 한국어 제목: 『변신론』

주요 저작3 한국어 제목: 『신인간오성론』

활동 시기: 근대 철학

활동 분야: 형이상학

대표 사상: 합리론

대표 이론: 실체론, 변신론, 유심론

반대자: 갓상디, 흉스, 아르노, 스피노자

영향을 준 철학자: 칸트

영향을 받은 철학자: 데카르트, 스피노자

## ○ 철학 용어: 정신 (3.3.2.3)

한국어 용어: 정신

한자어 표기: 精神

한국어 용어 정의: 이성을 가진 단자

한국어 반대 용어: 물체

한국어 유사 용어: 영혼

한국어 관련 용어: 이성

사용한 철학 분야: 형이상학

사용한 철학사: 서양근대철학

사용된 철학 이론: 합리론

사용한 철학자: 라이프니츠

사용한 철학 문헌: 『단자론』

다른 철학 용어와의 상하 관계: 상위 개념 – 실체

## ○ 철학 용어: 신 (2)

한국어 용어: 신

한자어 표기: 神

한국어 용어 정의: 가장 완전한 존재, 근원적 단자, 사물의 궁극적 근거

한국어 반대 용어: 피조물

한국어 관련 용어: 창조자

사용한 철학 분야: 형이상학

사용한 철학사: 서양근대철학

사용된 철학 이론: 합리론

사용한 철학자: 라이프니츠

사용한 철학 문헌: 『단자론』

## ○ 철학 용어: 진리 (1.2)

한국어 용어: 진리

한자어 표기: 眞理

한국어 용어 정의: 명제에서 술어가 주어 안에 포함되어 있음

한국어 반대 용어: 오류

한국어 유사 용어: 인식

사용한 철학 분야: 형이상학

사용한 철학자: 서양 근대 철학

사용된 철학 이론: 합리론

사용한 철학자: 라이프니츠

사용한 철학 문헌: 『단자론』

## ○ 철학 용어: 인식 (3.3.2.3)

한국어 용어: 인식

한자어 표기: 認識

한국어 반대 용어: 오류

한국어 유사 용어: 지식

한국어 관련 용어: 진리

사용한 철학 분야: 형이상학, 인식론

사용한 철학자: 서양 근대 철학

사용된 철학 이론: 합리론

사용한 철학자: 라이프니츠

사용한 철학 문헌: 단자론

## ○ 철학 용어: 세계 (4)

한국어 용어: 세계

한자어 표기: 世界

한국어 용어 정의: 공존 가능한 단자들의 집합

한국어 유사 용어: 우주

한국어 관련 용어: 자연

사용한 철학 분야: 형이상학

사용한 철학자: 서양 근대 철학

사용된 철학 이론: 합리론

사용한 철학자: 라이프니츠

사용한 철학 문헌: 단자론

## ○ 철학 용어: 지각(3.2.3.3)

한국어 용어: 지각

한자어 표기: 知覺

한국어 용어 정의: 단자의 내적 상태

한국어 반대 용어: 통각

한국어 유사 용어: 감각

한국어 관련 용어: 욕구

사용한 철학 분야: 형이상학

사용한 철학자: 서양 근대 철학

사용된 철학 이론: 합리론

사용한 철학자: 라이프니츠

사용한 철학 문헌: 단자론

## II. 『단자론』 지식 지도

### 1. 인식과 진리

1.1. 인식 (1-1-1/ )

1.1.1. 감각적 인식

1.1.1.1. 동물의 감각적 인식

1.1.1.1.1. 기억에 의한 인식 (1-1-1-1-1-1/ 1-1-1-1-1-1-1)

1.1.1.1.2. 감각에 의한 인식 (1-1-1-1-2-1/ 1-1-1-1-2-1-1)

1.1.1.2. 인간에게서의 감각적 인식 (1-1-1-2-1/ 1-1-2-1-1)

1.1.2. 이성적 인식

1.1.2.1. 이성적 인식의 정의 (1-1-2-1-1/ )

1.1.2.2. 이성적 인식의 원리 (1-1-2-2-1/ )

1.1.2.2.1. 모순율 (1-1-2-2-1-1/ 1-1-2-2-1-1-1)

1.1.2.2.2. 충족이유율 (1-1-2-2-2-1/ 1-1-2-2-2-1-1)

1.2. 진리 (1-2-1/ )

1.2.1. 진리의 구분 (1-2-1-1/ )

1.2.1.1. 이성 진리 (1-2-1-1-1/ 1-2-1-1-1-1)

1.2.1.2. 사실 진리 (1-2-1-2-1/ 1-2-1-2-1-1)

1.2.2. 진리의 근거 (1-2-2-1/ )

1.2.2.1. 이성 진리의 근거 (1-2-2-1-1/ 1-2-2-1-1-1~2)

1.2.2.2. 사실 진리의 근거 (1-2-2-2-1/ )

1.2.2.2.1. 사태의 무한 분할 가능성

(1-2-2-2-1-1/ 1-2-2-2-1-1-1)

1.2.2.2.2. 사실 진리의 근거로서의 신

(1-2-2-2-2-1/ 1-2-2-2-2-1-1)

## 2. 신

2.1. 신의 본성 (2-1-1/ )

2.1.1. 모든 사물의 최종 근거

2.1.1.1. 우연적 존재의 최종 근거 (2-1-1-1-1/ 2-1-1-1-1-1)

2.1.1.2. 모든 실재성의 최종 근거 (2-1-1-2-1/  
2-2-1-1-2-1-1)

2.1.2. 가장 완전한 존재 (2-1-2-1/ 2-1-2-1-1 ~ 3)

2.1.3. 근원적 실체 (2-1-3-1/ 2-1-3-1-1)

2.1.4. 능력 (2-1-4-1/ 2-1-4-1-1)

2.2. 신 존재 (2-2-1/ )

2.2.1. 우연한 사물의 존재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

2.2.1.1. 사실 진리와 우연적 사물의 존재

(2-2-1-1-1/ 2-2-1-1-1-1)

2.2.1.2. 증명의 구조 (2-2-1-2-1/ 2-2-1-2-1-1 ~ 3)

2.2.2. 영원한 진리의 실재성으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

(2-2-2-1/ 2-2-2-1-1 ~ 2)

2.2.3. 존재론적 신 존재 증명

2.2.3.1.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증명 비판 (2-2-3-1-1/ )

2.2.3.2. 존재론적 증명의 구조 (2-2-3-2-1/ 2-2-3-2-1-1)

## 3. 단자

### 3.1. 단자의 의미

3.1.1. 단순한 실체로서의 단자 (3-1-1-1/ 3-1-1-1-1)

3.1.2. 복합 실체의 근본 단위로서의 단자 (3-1-2-1/ 3-1-2-1-1~2)

### 3.2. 단자의 특성

3.2.1. 자연적 생성 소멸 불가능성

3.2.1.1. 단자의 자연 소멸 불가능성 (3-2-1-1-1/ 3-2-1-1-1-1)

3.2.1.2. 단자의 자연 생성 불가능성 (3-2-1-2-1/ 3-2-1-2-1-1)

3.2.1.3. 단자의 생성 소멸 원리 (3-2-1-3-1/ 3-2-1-3-1-1)

3.2.2. 상호 작용 불가능성 (1-3-2-1/ 1-3-2-1-1)

3.2.3. 상호 구별의 가능성

3.2.3.1. 성질 소유의 필연성 (3-2-3-1-1/ 3-2-3-1-1-1)

3.2.3.2. 상호 구별의 원리 (3-2-3-2-1/ 3-2-3-2-1-1)

3.2.3.3. 지각

3.2.3.3.1. 단자들의 변화 내용 (3-2-3-3-1-1/ 3-2-3-3-1-1-1~2)

3.2.3.3.2. 단일성 속의 다수성 (3-2-3-3-2-1/ 3-2-3-3-2-1-1~2)

3.2.3.3.3. 테카르트 정신 실체 비판 (3-2-3-3-3-1/ 3-2-3-3-3-1-1)

3.2.4. 변화 가능성

3.2.4.1. 변화의 필연성 (3-2-4-1-1/ 3-2-4-1-1-1)

3.2.4.2. 변화의 원리 (3-2-4-2-1/ 3-2-4-2-1-1)

3.2.4.3. 욕구 (3-2-4-3-1/ 3-2-4-3-1-1)

3.2.4.4. 지각 변화의 방식 (3-2-4-4-1/ 3-2-4-4-1-1~2)

### 3.3. 단자의 종류 (3-3-1/ )

3.3.1. 지각의 구분 (3-3-1/ )

3.3.1.1. 미세 지각 (3-3-1-1-1/ 3-3-1-1-1-1 ~ 2)

3.3.1.2. 감각을 동반하는 지각 (3-3-1-2-1/ 3-3-1-2-1-1 ~ 2)

3.3.1.3. 통각을 동반하는 지각 (3-3-1-3-1/ 3-3-1-3-1-1)

3.3.2. 명칭의 구분

3.3.2.1. 엔텔레키 (3-3-2-1-1/ 3-3-2-1-1-1)

3.3.2.2. 영혼 (3-3-2-2-1/ 3-3-2-2-1-1)

3.3.2.3. 정신 (3-3-2-3-1/ 3-3-2-3-1-1 ~ 2)

## 4. 세계 (4-1/ )

4.1. 단자들 간의 상호 관계

4.1.1. 물리적 영향과 관념적 영향

4.1.1.1. 물리적 영향 (4-1-1-1-1/ )

4.1.1.2. 관념적 영향 (4-1-1-2-1/ 4-1-1-2-1-1)

4.2. 능동과 수동

4.2.1. 일상적 의미에서의 능동과 수동 (4-2-1-1/ 4-2-1-1-1 ~ 2)

4.2.2. 관념적 영향에서의 능동과 수동 (4-2-2-1/ 4-2-2-1-1 >)

4.3. 창조의 원리

4.3.1. 가능성 세계 (4-3-1-1/ 4-3-1-1-1)

4.3.2. 선택의 원리 (4-3-2-1/ )

4.3.2.1. 완전성에 따른 존재의 요구 (4-3-2-1-1/  
4-3-2-1-1-2)

4.3.2.2. 선택의 기준 (4-3-2-2-1/ 4-3-2-2-1-1)

4.4. 지각의 질서와 단자들의 질서

4.4.1. 예정 조화 (4-4-1-1/ )

4.4.1.1. 단자들 사이의 예정 조화 (4-4-1-1-1/ 4-4-1-1-1-1)

4.4.1.2. 관념의 세계와 실재의 세계 사이의 대응

(4-4-1-2-1/ 4-4-1-2-1-1)

4.4.1.3. 작용인이 왕국과 목적인의 왕국 사이의 조화

(4-4-1-3-1/ 4-4-1-3-1-1)

4.4.2. 지각의 다양성

4.4.2.1. 단자의 배열 위치에 따른 다양성

(4-4-2-1-1/ 4-4-2-1-1-1)

4.4.2.2. 단자의 완전성의 등급에 따른 다양성

(4-4-2-2-1/ 4-4-2-2-1-1)

## 5. 복합 실체 (5-1/ )

5.1. 단자들의 존재 방식

5.1.1. 창조된 단자들과 근원적 단자의 존재 방식

5.1.1.1. 창조된 단자의 존재 방식(5-1-1-1-1/ 5-1-1-1-1-1)

5.1.1.2. 근원적 단자의 존재 방식 (5-1-1-2-1/ 5-1-1-2-1-1)

5.1.2. 유기체와 무기체

5.1.2.1. 유기체 (5-1-2-1-1/ )

5.1.2.1.1. 생명체의 육체 (5-1-2-1-1-1/ 5-1-2-1-1-1-1)

5.1.2.1.2. 신적인 기계 (5-1-2-1-2-1/ 5-1-2-1-2-1-1 ~ 2)

5.1.2.1.3. 물고기로 가득찬 연못의 비유

(5-1-2-1-3-1/ 5-1-2-1-3-1-1 ~ 2)

5.1.2.2. 무기체 (5-1-2-2-1/ 5-1-2-2-1-1 ~ 2)

5.2. 생명체의 변화

5.2.1. 변형론 (5-2-1-1/ 5-2-1-1-1 ~ 3)

5.2.2. 변식 (5-2-2-1/ 5-2-2-1-1 ~ 2)

5.2.3. 죽음의 부정 (5-2-3-1/ 5-2-3-1-1 ~ 3)

5.3. 영혼과 육체 사이의 조화

5.3.1. 심신 상호 관계에 대한 예정 조화론 (5-3-1-1/  
5-3-1-1-1)

5.3.2. 심신 상호 작용설 비판 (5-3-2-1/ 5-3-2-1-1)

## 6. 신국 (6-1/ )

6.1. 신국의 구성

6.1.1. 신국 신민으로서의 이성을 가진 단자들

(6-1-1-1/ 6-1-1-1-1~3)

6.1.2. 신국의 군주로서의 신 (6-1-2-1/ 6-1-2-1-1)

6.1.3. 신국의 완전성

6.1.3.1. 가장 완전한 통치 (6-1-3-1-1/ 6-1-3-1-1-1)

6.1.3.2. 도덕의 왕국 (6-1-3-2-1/ 6-1-3-2-1-2)

6.2. 신국의 정의로움

6.2.1. 자연의 왕국과 신국 사이의 조화 (6-2-1-1/ 6-2-1-1-1)

6.2.2. 자연적으로 실현되는 정의 (6-2-2-1/ 6-2-2-1-1 ~ 3)

6.2.3. 가능한 최선의 세계 (6-2-3-1/ 6-2-3-1-1)

## 제3부 『단자론』의 주요 주제어 분석

### 1. 인식과 진리

#### 1.1. 인식

<1-1-1> 데카르트가 인식의 종류를 명석한 인식과 판명한 인식으로 구별한 것을 라이프니츠는 명석한 인식, 판명한 인식, 충전적 인식, 직관적 인식의 네 등급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단자론』에서 라이프니츠는 이들 중 앞의 두 가지 종류의 인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충전적 인식과 직관적 인식은 신에게서나 가능한 인식인데 비해 여기서 인간의 인식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서는 명석한 인식과 판명한 인식만이 가능한데, 명석한 인식은 감각적 인식에 해당하고 판명한 인식은 이성적 인식에 해당한다.

##### 1.1.1. 감각적 인식

###### 1.1.1.1. 동물의 감각적 인식

###### 1.1.1.1.1. 기억에 의한 인식

<1-1-1-1-1-1> 라이프니츠는 기억에 의한 추리도 일종의 추리라고 본다. 동물들은 과거에 어떤 사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을 경우, 동일한 사물을 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한다. 어떤 사물과 그 결과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기억에 의하여 확실하게 한 사물의 존재로부터 그 결과를 추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리는 이성적 추리를 모방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물과 그 결과 사이의 보편적인 관계를 의식하지 못하고 단지 기억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성

에 의한 추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라이프니츠의 인식의 분류에 의하면 이것은 명석한 인식에 해당한다.

<1-1-1-1-1-1-1> 기억은 영혼에게, 이성을 모방하기는 하지만 그것과는 구별되어져야 하는 일종의 추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들이, 그들에게 인상을 주고 이에 관해 그들이 전에 이미 유사한 지각을 가졌던 어떤 것을 지각할 때, 기억을 통하여 전에 이러한 지각과 결합되었던 어떤 것과 그들이 그 때와 유사한 감정으로 유발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안다. 예를 들어 개에게 막대기를 보여주면,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야기시켰던 고통을 기억하고 울부짖으며 그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26)

#### 1.1.1.1.2. 감각에 의한 인식

<1-1-1-1-2-1> 기억에 의한 추리는 감각적 인식에 다름 아니다. 강한 지각이나 약한 지각이라도 여러 차례 경험하면 이로부터 습관이 형성되어 동일한 대상으로부터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리라 기대하게 되기 때문이다.

< 1-1-1-1-2-1-1> 이때 그들을 자극하고 움직이는 강한 감각적 표상은 선행하는 지각의 크기나 또는 양에 기인한다. 왜냐하면 강한 인상은 종종 한 번에 오랜 습관이나 여러 번 반복된 중간 정도로 강한 지각들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이다.(27)

#### 1.1.1.2. 인간에게서의 감각적 인식

< 1-1-1-2-1>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는 하지만, 항상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라이프니츠는 전체 행동의 4분의 3은 다른 동물처럼 이성에 의하지 않고 경험이나 기억에 따라 행동한다고 본다. 이러한 비이성적 추리나 판단의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질병의 특징과 약재에 대한 특징을 인식하고 특정 질병에 대하여 특정의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대증 요법처럼 병의 원인도 잘 모르면서 경험에 의하여 특정의 약재를 처방하는 의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 1-1-2-1-1> 사람들이 전적으로 기억의 원리를 통하여 그들의 지각으로부터 추론을 하는 한 인간은 동물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이 때 그들은 단지 실습만 하고 이론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경험적 의사와 비슷하다. 우리들도 또한 전체 행동의 4분의 3의 경우에는 순수한 경험론자처럼 행동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내일 다시 낮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이것이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으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단지 천문학자만이 이에 대해 이성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28)

### 1.1.2. 이성적 인식

#### 1.1.2.1. 이성적 인식의 정의

< 1-1-2-1-1> 그러나 인간은 경험이나 기억에 의해서만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을 동물과 구별할 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이성에 의한 인식의 대표적인 예로 라이프니츠는 분석 판단에 해당하는 필연적 진리를 들고 있지만, 그러나 필연적 진리만이 이성적 인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물과 그 결과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보편성을 인식하고 그 사물로부터 결과를 추론하거나, 어떤 사물에 대한 본질적 특징을 통하여 다른 사물과 구별할 경우 이것은 필연적 진리를 산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성에 의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라이프니츠의 인식의 분류에 의하면 판명한 인식에 해당한다.

### 1.1.2.2. 이성적 인식의 원리

< 1-1-2-2-1> 데카르트가 이성의 인식 원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의 존재 인식 과정이나 신 존재 증명 과정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라이프니츠는 기본적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성의 근본 원리를 전제하고 출발한다. 그것은 모순율과 충족 이유율이다. 이 두 원리는 다른 원리들에 의해서 증명될 수 없으며, 오히려 다른 진리들이 이 원리에 의거하여 진리가 될 수 있는 원리들로, 『신 인간오성론』에서 라이프니츠는 이 원리들을 본유적 원리로 간주하고 있다. 이성적 인식은 이 두 가지 원리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첫 번째로 어떤 명제가 모순을 포함하고 있으면 진리일 수 없는 까닭에 이성 진리이든 사실 진리이든 모순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순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모든 명제는 그것이 참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1.1.2.2.1. 모순율

< 1-1-2-2-1-1> 라이프니츠는 모순율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변신론』에서는 “서로 모순 관계에 있는 두 주장은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거짓이다”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단자론』에서는 “모순을 포함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고, 거짓인 것과 모순인 것은 참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한다.

< 1-1-2-2-1-1-1> 우리의 이성적 인식들은 두 가지의 큰 원칙에 기인한다. 첫 번째 원칙은 모순율인 데,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모순을 포함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거짓인 것과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모든 것을 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31)

### 1.1.2.2.2. 충족 이유율

< 1-1-2-2-2-1> 라이프니츠는 충족 이유율을 존재, 변화 또는 사건, 그리고 인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그에 의하면 또한 것도 충분한 이유가 없이는 존재하거나 변화할 수 없고, 어떠한 주장도 충분한 이유가 없이는 진리일 수 없다.

< 1-1-2-2-2-1-1> 두 번째로, 이성적 인식들은 충족 이유율에 기인하는 데, 이를 통하여 우리는, 비록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그 근거들이 알려지지 않는다 해도 어떤 것이 왜 이래야 하고 달리 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실도 진실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없고 어떠한 명제도 참으로 증명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32)

## 1.2. 진리

< 1-2-1> 라이프니츠는 모든 참인 명제는 주어 개념 안에 술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것을 *inesse*(포함되어 있음)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원칙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일견 칸트의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 사이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술어가 주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방식에 의하여 두 가지 종류의 명제 또는 진리를 구별한다. 즉 술어가 주어 안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가 또는 단지 함축적으로만 포함되어 있는가에 따라 이성 진리와 사실 진리로 구분하는 것이다.

### 1.2.1. 진리의 구분

< 1-2-1-1> 초기에 라이프니츠는 모든 참인 명제는 주어 개념의 분석을 통하여 술어가 주어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후에 칸트가 구분한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의 구분을 부정하였다. 칸트가 종합 명제라고 부른 사실에 관한 명제들은 유한한 횟수의 분석을 통하여 술어가 주어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힐 수는 없는데, 라이프니츠는 이것이 인간의 이성이 유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신은 모든 사실에 관한 명제도 주어의 분석을 통하여 술어가 주어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필연적 진리와 우연적 진리 또는 칸트의 용어로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의 구분은 단지 유한한 이성의 관점에서의 구분일 뿐이며, 신에게서는 이러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686년 무렵 이후에는 이러한 생각을 바꾸어 신도 사실에 관한 명제의 주어 분석을 통하여 술어가 주어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는 없고, 다만 전지한 능력을 통하여 주어 안에 술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통찰할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중기 이후의 사상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신에게도 필연적 진리와 우연적 진리 또는 이성 진리와 사실 진리의 구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이 이성 진리만이 이성을 통해서 인식되고 사실 진리를 인식하는 데는 이성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진리도 단순히 감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인식되는 것이다. 즉 사실 진리 중에서도 판명한 인식은 이성을 통해서 인식되는 진리인 것이다.

### 1.2.1.1. 이성 진리

< 1-2-1-1-1> 이성 진리는 주어의 유한한 횟수의 분석을 통하여 술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명제의 진리이다. 즉 그것은 술어가 주어 개념 안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명제의 진리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명제를 부정하면 모순에 빠지므로 그 반대가 불가능하고, 그 진리는 필연적이다. 라이프니츠가 이성 진리를 필연적 진리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또한 이성 진리를 영원한 진리라고도 부른다.

< 1-2-1-1-1-1> 나아가 두 가지 종류의 진리, 즉 이성 진리와 사실 진리가 존재한다. 이성 진리는 필연적이고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 사실 진리는 우연적이고 그 반대가 가능하다. 어떤 진리가 필연적이라면 우리는, 이 진리를 근원적인 관념과 진리에 도달할 때까지 단순한 관념들과 진리들로 분해함으로써 그 근거를 분석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 (33).

### 1.2.1.2. 사실 진리

< 1-2-1-2-1> 사실 진리란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는 명제의 진리로, 이러한 명제는 주어 개념 안에 술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지 함축적으로만 포함되어 있어서 신조차 주어 개념의 분석을 통하여 술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없는 명제의 진리이다. 신은 단지 전지한 능력을 통하여 주어 개념 안에 술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통찰할 수 있을 뿐 증명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명제는 부정해도 모순되지 않으며, 그 반대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명제의 진리는 우연적이다.

< 1-2-1-2-1-1> 나아가 두 가지 종류의 진리, 즉 이성 진리와 사실 진리가 존재한다. 이성 진리는 필연적이고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 사실 진리는 우연적이고 그 반대가 가능하다. (33).

### 1.2.2. 진리의 근거

< 1-2-2-1> 모든 진리인 명제들은 기본적으로 모순율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즉 그것이 참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충족되

기 전에 우선 모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명제가 모순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진리가 될 수 없으며, 이성 진리이든 사실 진리이든 충족 이유율에 따라 그것이 진리이기 위한 충분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 1.2.2.1. 이성 진리의 근거

< 1-2-2-1-1> 이성 진리는 부정하면 모순이 되므로 그 반대가 불가능한 진리이다. 따라서 어떤 명제가 이성 진리이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부정하면 모순이 되는 동일 명제이거나, 주어 개념의 분석을 통하여 동일 명제로 환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성 진리의 근거는 동일 명제인 것이다.

< 1-2-2-1-1-1>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학자에게 있어 **이론적인 정리들과 실천적인 규칙**들은 분석을 통하여 정의와 공리, 그리고 공준으로 환원되어 진다. (34)

< 1-2-2-1-1-2> 이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더 이상 정의할 수 없는 단순한 관념들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는 또한 공리들과 공준들 또는, 한 마디로 말하면, 증명될 수 없고 어떠한 증명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근원적인 원리들에 도달하게 되는 데, 이들이 그것을 부정하면 명시적인 모순을 포함하게 되는 **동일 명제**들이다. (35)

### 1.2.2.2. 사실 진리의 근거

< 1-2-2-2-1> 사실 명제도 그것이 참이기 위해서는 우선 모순율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그 명제가 모순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조건은 단지 필요 조건일 뿐이다. 어떤 사실에 관한 명제가 참이기 위해서는 충족 이유율에 따라서 참이기 위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 명제들은 주어의 분석

을 통해서 동일 명제로 환원되지 않는 명제들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실 명제의 진리 근거는 대상, 즉 창조된 사물의 결과나 연관과 그 명제의 일치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명제와 사태간의 일치만으로는 사실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단순히 명제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태의 진리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떤 사태가 왜 그럴 수밖에 없고, 달리 전개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그 사태에 대한 진술도 진리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 1.2.2.2.1. 사태의 무한 분할 가능성

< 1-2-2-2-1-1> 라이프니츠는 사태가 무한히 복잡하므로 그 분석 또한 무한히 가능하고 그 사태 안에서는 그 사태를 진리가 되도록 하는 필연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주어 개념 안에 술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어의 개념이 무한히 복합적이므로 유한한 분석을 통해서는 술어가 주어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없고, 따라서 동일 명제로 환원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이다.

< 1-2-2-2-1-1-1> 그러나 충족 이유율은 우연한 진리 또는 사실 진리, 즉 모든 창조된 사물들의 결과나 연관 속에도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는 자연 사물들이 매우 다양하고 물체는 무한히 분할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근거로의 분해가 제한 없이 계속될 수 있다. 현재 나의 저술 행위에 대한 작용 원인을 이루는 현재와 과거의 상황들과 운동들은 무한히 많이 존재하며, 그의 목적인들을 이루는 내 영혼의 현재와 과거의 작은 경향들과 성향들도 무한히 많이 존재한다. (36).

< 1-2-2-2-1-2> 그런데 이 모든 **개별적 원인**들은 다시금, 그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시 동일한 분석을 요구하는 더욱 구체적이고 선 행하는 다른 **우연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충분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 계열이 아무리 무제한적으로 계속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또는 최종 근거는 우연한 개별적 사물들의 연속이나 계열 외부에 놓여야 한다. (37)

#### 1.2.2.2. 사실 진리의 근거로서의 신

< 1-2-2-2-2-1> 라이프니츠는 사태의 분석은 무한히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태를 반드시 그 사태이도록 하는 필연적인 근거는 사태의 연관 계열 외부에 존재에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외부에 존재하는 사태의 필연적인 근거가 다름 아닌 신이다. 라이프니츠는 신은 사실 진리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즉 모든 존재의 본질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존재의 근거이다. 이러한 신을 사물의 최종 근거(ultima ratio rerum)라고 한다.

< 1-2-2-2-2-1-1> 따라서 사물의 최종 근거는 필연적인 실체 안에 놓여야 한다. 이 실체 안에서는 변화의 구체성이 그 근원 안에서와 같이 단지 탁월한 방식으로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체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 (38)

## 2. 신

### 2.1. 신의 본성

< 2-1-1> 데카르트가 전통적 신 개념을 단순히 수용하여 이를 전제로 신의 존재 증명을 하고 있는데 비해, 라이프니츠는 신 개념을 유한한 존재의 인식 능력을 통하여 도출한다. 그가 『단자

론』에서 신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이성의 양대 원리와 인식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는 신을 모든 존재와 본질의 근원이고, 가장 완전한 존재이며, 근원적인 단자이고, 또한 유한한 이성적 존재와 마찬가지로 능력, 인식 그리고 의지를 가진 존재로 이해한다.

### 2.1.1. 모든 사물의 최종 근거

#### 2.1.1.1. 우연적 존재의 최종 근거

< 2-1-1-1-1> 우선 라이프니츠는 신을 모든 사물의 최종 근거로 이해한다. 인간이 이러한 신 개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우연적인 진리의 근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이다. 필연적인 진리는 그 자체가 동일 명제이거나 논리적인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동일 명제로 환원되어져야 한다. 즉 동일 명제가 필연적 진리의 최종근거인 것이다. 그러나 우연적 진리는 논리 분석을 통하여 동일명제로 환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족 이유율에 따라 우연적 진리의 근거가 존재해야 하므로 그것이 신이라고 보는 것이다. 신이 우연적 진리, 즉 사실 명제의 진리의 근거인 까닭은 사실 명제가 대상으로서의 사태에 관한 진술이고 사태는 신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은 우연한 사실들이 왜 달리 전개되지 않고 특정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가에 대한 충분한 근거이고, 또한 존재하는 사물이 있다면 모든 존재의 근거이다.

< 2-1-1-1-1-1> 그런데 이 모든 **개별적 원인**들은 다시금, 그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시 동일한 분석을 요구하는 더욱 구체적이고 선행하는 다른 **우연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충분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 계열이 아무리 무제한적으로 계속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또는 최종 근거는 우연

한 개별적 사물들의 연속이나 계열 외부에 놓여야 한다.(37)

< 2-1-1-1-1-2> 따라서 사물의 최종근거는 필연적인 실체 안에 놓여야 한다. 이 실체 안에서는 변화의 구체성이 그 근원 안에서와 같이 단지 탁월한 방식으로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체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 (38)

< 2-1-1-1-1-3> 이 실체는 서로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충분한 근거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신만이 존재하고, 이 신은 충분하다. (39)

### 2.1.1.2. 모든 실재성의 최종 근거

< 2-1-1-2-1> 신은 우연적 존재들의 최종 근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실재성의 근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연적 진리 안에 실재성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은 또한 이들의 최종 근거이기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신 없이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2-2-1-1-2-1-1> 그렇지만 신은 존재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실재적인 본질 또는 가능한 것 안에서 실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의 근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신의 오성은 영원한 진리 또는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관념들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의 오성이 없이는 가능한 것들 안에는 어떤 실재적인 것도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다.(43)

### 2.1.2. 가장 완전한 존재

< 2-1-2-1> 라이프니츠는 신이 모든 사물의 최종근거라는 주장으로 신은 가장 완전한 존재라고 추론한다. 신이 모든 사물의 최종근거라면 그의 외부에 그로부터 독립적인 것은 아무것

도 없으며, 따라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유일하고 필연적인 존재이다. 이것은 다른 존재로부터 제한될 수 없기 때문에 무한하다. 즉 그의 실재성은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실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이다.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완전성을 무한한 적극적 실재성의 크기로 규정함으로써 실재성과 완전성이 서로 다른 개념인 듯한 인상을 주지만, 라이프니츠는 다른 곳에서는 두 개념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실재성 또는 완전성이란 이란 모순 없이 사고할 수 있는 적극적 사유 내용을 의미한다.

< 2-1-2-1-1> 필연적 진리의 인식과 이에 대한 추상화를 통하여 우리는 자신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나에 대한 생각을 품도록 하고 이것 또는 저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숙고하도록 하는 반성적 행위로 고양시킨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사유함으로써 우리들은 동시에 존재와, 단순한 것이든 복합적인 것이든 실체, 비물질적인 것,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제한되어 있는 것이 그의 안에서는 무제한하다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신 자체에로 우리의 생각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적 행위들은 우리의 이성적 인식을 위한 주된 대상들을 제공한다. (30)

< 2-1-2-1-2>나아가, 이 최고 실체의 외부에는 그로부터 독립적인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으며 그것은 가능한 존재의 단순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며 필연적인 이 최고의 실체는 유한할 수 없으며 가능한 한 많은 실재성을 가져야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40)

< 2-1-2-1-3>이로부터 신은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는 결론이 나오다. **완전성**이란, 우리가 실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물들의 한계나 제한을 도외시 할 때 얻는, 적극적 실재성 그 자체의 크기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떠한 제한도 없는 곳, 즉 신 안에서는 완전성은 절대

적으로 무한하다 (41)

### 2.1.3. 근원적 실체

< 2-1-3-1> 모든 사물의 최종적 근거라는 신의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또 다른 의미는 신이 근원적 실체라는 것이다. 유한한 피조물만이 실체가 아니라, 신도 단순한 실체이며, 신은 모든 유한한 실체들이 그로부터 산출되는 근원적 실체이다. 이에 비해 유한한 실체는 파생적 실체이다. 라이프니츠는 마치 플로티노스의 유출설과 같이 파생적 실체들은 매 순간 신으로부터 번개와 같이 신성이 방출됨으로서 창조된다고 주장한다.

< 2-1-3-1-1> 이에 따르면 신만이 근원적인 단일성 또는 근원적인 단순실체이다. 모든 창조된 또는 파생된 모나드들은 그의 산출물이고, 말하자면 매 순간 신성이 끊임없이 방사됨으로써 생성된다. 이때 그들은 본성에 의해 한계를 가진 피조물의 수용성을 통하여 제한된다. (47)

### 2.1.4. 능력

< 2-1-4-1> 라이프니츠가 신의 본성을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 또는 유한한 실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재성으로부터 한계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한한 실체를 근원적 실체인 신으로부터의 파생적 실체로 보는 관점이나, 신이 자신의 형상을 모방하여 유한한 실체를 창조했다고 보는 견해와 일치한다. 유한한 실체들은 모두 주체와 지각 능력, 그리고 욕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능력들은 유한한 실체들 간에 있어서 그 완전성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근원적 실체로서의 신은 이들은 무한한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신 안에는 모든 것의 근원인 능력이 있고, 모든 관념을 포함하는 인식이 있고 또한 최선의

원리에 따라 변화 또는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의지가 있다.

< 2-1-4-1-1> 신 안에는 모든 것의 근원인 능력이 있고, 개별적인 관념들을 포함하는 인식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선의 원리에 따라 변화 또는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의지가 있다. 이것은 창조된 모나드에게 있어서의 주체 또는 기체, 지각능력, 그리고 욕구능력에 해당한다. 그러나 신에게 있어서 이들 속성들은 절대적으로 무한하거나 또는 완전하다. 반면에 모나드 또는 엔텔레키(또는 헤르몰라우스 바르바루스Hermolaus Barbarus의 번역에 따르면 완전성 담지체)에 있어서 이들은 단지 그들의 완전성의 정도에 따른 차등을 갖는 모방일 뿐이다. (48)

## 2.2. 신 존재

< 2-2-1> 라이프니츠는 『단자론』에서 세 가지 방식의 신 존재 증명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그가 후험적 방식에 의한 증명이라고 부른 우연한 사물의 존재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 영원한 진리의 실재성으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 그리고 선험적 방식에 의한 신 존재 증명이라고 부르는 존재론적 증명 등이다. 그러나 그의 세 가지 신 존재 증명은 모두 매우 불완전해 보인다. 그것은 『단자론』이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거를 설명하는 대신 논거를 단순화한 데 기인한다.

### 2.2.1. 우연한 사물의 존재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

#### 2.2.1.1. 사실 진리와 우연적 사물의 존재

< 2-2-1-1-1> 『단자론』에서의 후험적 신 존재 증명은 우연적 사물의 존재가 아니라 사실 진리에 대한 근거의 검토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사실 진리가 우연적 사물들의 사태에 관한 진술이기 때문에 사실 진리의 근거는 사태들의 근거와 동일하고 따라서 사실진리, 즉 우연적 진리의 근거를 규명하는 것은 우연적 존재의 근거를 규명하는 문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 2-2-1-1-1-1> 그러나 **충족 이유율은 우연한 진리 또는 사실진리**, 즉 모든 창조된 사물들의 결과나 연관 속에도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는 자연 사물들이 매우 다양하고 물체는 무한히 분할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근거로의 분해가 제한 없이 계속될 수 있다. 현재 나의 저술 행위에 대한 작용 원인을 이루는 현재와 과거의 상황들과 운동들은 무한히 많이 존재하며, 그의 목적인들을 이루는 내 영혼의 현재와 과거의 작은 경향들과 성향들도 무한히 많이 존재한다. (36).

### 2.2.1.2. 증명의 구조

< 2-2-1-2-1> 라이프니츠의 우연한 사물의 존재로부터의 신존재 증명, 또는 후험적 신 존재 증명은 데카르트의 제3성찰에서의 두 번째 신 존재 증명, 즉 신 관념을 가지고 있는 나의 존재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과 유사하다. 즉 그 존재가 확실히 밝혀진 우연한 존재에 충족 이유율을 적용하여 그 존재에 대한 충분한 근거로서의 신이 존재해야 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물론 우연한 존재란 유한한 단순 실체를 의미하는데 무엇보다도 그 존재가 확실시 되는 것은 나의 존재이다. 라이프니츠는 『신인간오성론』에서 데카르트의 철학의 제1원리를 받아들여 ‘나의 존재’를 ‘첫 번째 경험’이라고 한다. 즉 그 존재가 확실하게 알려지는 첫 번째 인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데카르트가 나의 존재에 대한 원인을 찾아감에 있어, 나의 원인과 그 원인에 대한 원인을 거슬

러 올라가면서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원인을 찾고 있는데 비해 라이프니츠는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게 알려진 유한한 실체는 그 존재의 근거를 가져야 하는데, 그 근거는 개별적 실체 안에 존재 할 수 없고, 또한 실체들의 결합체 안에도 존재할 수 없고, 사물 들의 계열 안에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근거는 유한한 실체의 전체 또는 계열 외부에 존재해야 하고 이러한 존 재는 바로 필연적 존재 즉 신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 2-2-1-2-1-1> 그러나 **충족 이유율은 우연한 진리 또는 사실 진 리**, 즉 모든 창조된 사물들의 결과나 연관 속에도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는 자연 사물들이 매우 다양하고 물체는 무한히 분할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근거로의 분해가 제한 없이 계속될 수 있다. 현재 나의 저술 행위에 대한 작용 원인을 이루는 현재와 과거의 상황들과 운동들은 무한히 많이 존재하며, 그의 목적인들을 이루는 내 영혼의 현재와 과거의 작은 경향들과 성향들도 무한히 많이 존재한다. (36).

< 2-2-1-2-1-2> 그런데 이 모든 **개별적 원인**들은 다시금, 그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시 동일한 분석을 요구하는 더욱 구체적이고 선행하는 다른 **우연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충분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 계열이 아무리 무제한적으로 계속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또는 최종 근거는 우연한 개별적 사물들의 연속이나 계열 외부에 놓여야 한다. (37)

< 2-2-1-2-1-3> 따라서 사물의 최종근거는 필연적인 실체 안에 놓여야 한다. 이 실체 안에서는 변화의 구체성이 그 근원 안에서와 같이 단지 탁월한 방식으로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체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 (38)

## 2.2.2. 영원한 진리의 실재성으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

< 2-2-2-1> 영원한 진리의 실재성으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은 모든 실재성은 신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영원한 진리, 즉 필연적 진리는 부정하면 모순에 빠지는 명제의 진리이기 때문에 유한한 이성을 통해서도 명확히 인식되는 진리이다. 그런데 실재하는 사물들만이 아니라, 관념들도 실재성을 갖는다. 따라서 관념들 사이의 관계를 진술하는 영원한 진리도 실재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실재성의 원인으로서의 신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라이프니츠가 영원한 진리는 허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할 영역으로서 신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영원한 진리는 유한한 이성적 존재의 정신 안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한한 이성적 존재의 정신 안에 존재하는 영원한 진리의 실재성은 유한한 이성적 존재 자신일 수는 없고, 모든 실재성의 근본적 원인은 신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실재성이란, 영원한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성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적극적 사고 내용의 크기를 의미한다.

< 2-2-2-1-1> 그렇지만 신은 존재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실재적인 본질 또는 가능적인 것 안에서 실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의 근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신의 오성은 영원한 진리 또는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관념들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의 오성이 없이는 가능적인 것들 안에는 어떤 실재적인 것도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다.(43)

< 2-2-2-1-2> 왜냐하면 본질이나 가능적인 것 안에 또는 영원한 진리 안에 실재성이 존재한다면, 이 실재성은 어떤 현존하는 것 그리고 실제적인 것,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는 본질이 존재를 포함하는, 그

리고 현실적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충분한, 필연적인 존재의 현존 안에서 그 근거를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44)

### 2.2.3. 존재론적 신 존재 증명

#### 2.2.3.1.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증명 비판

< 2-2-3-1-1>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신 존재증명을 보완하여 보다 완전한 형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단자론』에서 제시된 존재론적 증명은 매우 불완전한 형태로 소개되어 있다. 존재론적 신 존재 증명은 신의 본질 안에는 존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증명인데,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데카르트나 안셀름의 존재론적 증명은 바로 신의 정의로부터 신의 존재를 도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증명이 아니라 동어 반복에 불과하다. 라이프니츠는 정의를 명목상의 정의와 실질적 정의로 구별한다. 명목 상의 정의란 형식적인 용어의 정의를 말한다. 이에 대해 실질적 정의란 그것의 가능성을 밝히는 것이다. 즉 어떤 사물을 실질적으로 정의한다함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밝히는 것이다.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데카르트는 신의 명목상의 정의로부터 신의 존재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동어 반복을 한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신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정의하여야, 신의 본질로부터 존재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2.2.3.2. 존재론적 증명의 구조

< 2-2-3-2-1> 신의 명목상의 정의는 최고로 완전한 존재이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증명에 의하면, 존재는 완전성의 하나이므로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추론한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최고로 완전한 존재가 가능함을 먼저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최고로 완전한 존재 또는 필연적인 존재는 그것이 가능하

다면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될 유일한 존재이다. 그런데 최고로 완전한 존재 또는 필연적인 존재란 어떠한 모순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것을 불가능하게 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고로 완전한 존재 또는 필연적인 존재는 가능하다. 따라서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 2-2-3-2-1-1> 따라서 신(또는 필연적 존재)만이 그가 가능하면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특권을 갖는다. 그런데 아무것도, 어떠한 제약도, 어떠한 부정도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떠한 모순도 포함하지 않는 것의 가능성은 저지할 수 없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이미 신의 현존을 선험적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존재를 영원한 진리의 실재성을 통하여 증명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의 현존을 이미, 그들의 최후의 또는 충분한 근거를 단지 필연적 존재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우연적 존재의 현존으로부터 후험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 이 필연적인 존재는 자신의 존재근거를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45)

### 3. 단자

#### 3.1. 단자의 의미

##### 3.1.1. 단순한 실체로서의 단자

< 3-1-1-1> 데카르트가 보편 개념으로서의 정신 또는 물체를 실체로 간주하였고 스피노자는 유일한 신 또는 총체로서의 자연을 실체라고 본 것과는 달리 라이프니츠의 실체는 영혼 또는 정신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개별자 하나하나가 바로 실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자들의 결합체, 즉 실체들의 결합체를 생각할 수 있고, 실체들의 결합체 또한 실체이므로 이것을 복합실체라고 부른다. 그러나 복합실체의 특성을 논하기에 앞서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 실체의 특성을 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이프니츠

는 복합된 실체와 구별하여 개별적인 실체를 단자라고 부른다. 이 단자란 그리스어에서 하나를 의미하는 모나스(monas)에서 온 말인데, 라이프니츠는 단자의 개념을 분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단순한 실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 3-1-1-1-1> 우리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단자는 복합된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순한 실체에 다름 아니다. 단순하다함은 부분이 없다는 뜻이다 (1)

### 3.1.2. 복합 실체의 근본 단위로서의 단자

< 3-1-2-1> 단자는 복합된 것을 구성하는 그 자체로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기본 요소이다. 그런데 여기서 복합된 것이란, 라이프니츠가 가끔 이에 대해 물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또는 영혼과 대립되는 의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미의 물체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 물질적인 것이 아무리 복합된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것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는 『형이상학 논고』 27절에서 코페르니쿠스주의자들이 지동설을 주장하면서도 “태양이 뜨고 진다”는 등과 같은 천동설의 표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처럼 가끔 형이상학에서도 일상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라이프니츠가 단자들의 집합체에 물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단자들의 집합체는 복합 실체이고, 이에 대응하는 각각 내의 현상이 물체이다. 라이프니츠의 관점에서는 물체란 실재가 아니라 관념이다. 그는 1714에 르몽드(Remond)에게 쓴 편지에서 물체는 관념의 영역에 속하고 실체는 실재의 영역에 속하는데, 관념의 영역에서는 전체가 부분에 선행하며 전체로서의 물체는 무한히 분할 가능하

고 부분은 단지 가능적으로만 주어지는 데 반해, 실재의 영역에 서는 부분인 단자가 실재적으로 집적체인 전체에 앞서 주어져 있다고 말한다. 집적체를 단순한 것의 집합체로 보는 『단자론』 2절의 입장은 바로 실재의 영역에 대한 주장인 것이다. 단자는 물체를 이루는 물질적 원소, 즉 원자가 아니라 단지 단자들의 집적체의 요소인 것이다.

< 3-1-2-1-1> 복합된 것이 존재하므로 단순한 실체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복합된 것은 단순한 것들의 집적 또는 집합체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2)

< 3-1-2-1-2> 그런데 부분이 없는 곳에서는 연장도, 형태도 또한 분할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자들은 자연의 진정한 원자이고-한 마디로 말하면-사물들의 요소이다.(3)

### 3.2. 단자의 특성

#### 3.2.1. 자연적 생성 소멸 불가능성

##### 3.2.1.1. 단자의 자연 소멸 불가능성

< 3-2-1-1-1> 단자, 즉 단순한 실체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자연의 변화 과정에서 소멸될 수 없다. 모든 복합적인 것은 부분으로 분해됨으로써 자연 과정에서 소멸된다. 그러나 단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 없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현상세계 안에서 질량 불변의 법칙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 3-2-1-1-1-1> 또한 그들의 해체를 염려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단순한 실체가 자연의 과정에서 어떻게 소멸하는 지는 전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4)

### 3.2.1.2. 단자의 자연 생성 불가능성

< 3-2-1-2-1> 단자는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부분으로부터 합성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 과정에서는 생성되지 않는다.

< 3-2-1-2-1-1> 동일한 이유에서, 단순한 실체들이 집적을 통하여 형성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단순한 실체가 자연적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5)

### 3.2.1.3. 단자의 생성 소멸 원리

< 3-2-1-3-1> 단자들은 자연을 구성하는 근본 단위들이기 때문에 자연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없다. 즉 단자들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분으로 분해되어 없어질 수도 없고, 부분들이 모여서 생성될 수도 없다. 단자는 오로지 신에 의한 창조를 통해서만 무로부터 생성되고, 신에 의한 파괴를 통해서만 무로 소멸될 수 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생성되고 소멸된다는 것이다.

< 3-2-1-3-1-1> 이에 의하면, 단자들은 단지 한번에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있다고, 즉 그들은 단지 창조를 통해서만 생성되고 파괴를 통해서만 소멸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복합된 것은 부분으로부터 생성되고, 부분으로 소멸된다.(6)

### 3.2.2. 상호 작용 불가능성

< 1-3-2-1> 데카르트에 의하면 실체는 자족적이기 때문에 실체 간에는 상호 작용하지 않는다. 즉 실체들은 독자적인 원리에 따라서 작용하지 서로 다른 실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정신과 육체의 결합체인 인간에게 예외를 허용하여 심신 상호 작용설을 주장하고 말았다. 라이프니츠는 실체들의 상호 작용 불가능성을 엄격히 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여기서 상호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구공이 서로 충돌을 통하여 운동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상호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자의 내부 변화에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라이프니츠는 “단자는 창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단자들이 상호 작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분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어떤 것을 받아들일 내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호 작용 불가능성은 단자론에서 예정 조화설의 근본 전제가 된다. 단자들은 서로 상호 작용하지 않지만, 신이 단자들의 지각의 변화를 예견하고 서로 다른 단자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 예정 조화설이기 때문이다.

< 1-3-2-1-1>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단자 내부에 어떤 것도 전달할 수 없고, 그 안에서조차도, 부분들 상호간에 관계의 변화가 가능한 복합된 사물들에게서 와는 달리, 그 안에서 야기되고, 전도되고, 증가하거나 감소되어 질 수 있는 어떤 내부 운동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의 단자가 어떤 다른 피조물에 의해 그의 내부에 영향을 받거나 변화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자들은 어떤 것이 그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창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유적 속성들은 실체들로부터 분리될 수도 없고, 이전에 스콜라 철학자들의 감각적인 형상 (species sensibiles)이 그랬듯이, 실체의 외부에서 떠돌아다닐 수도 없다. 따라서 실체도 우유적 속성도 외부로부터 단자의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다.(7)

### 3.2.3. 상호 구별의 가능성

#### 3.2.3.1. 성질 소유의 필연성

< 3-2-3-1-1> 단자는 현상 세계의 근원을 이루는 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현상 세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단자들은 부분도 없고, 크기도 없고, 형태도 없기 때문에 외적으로만 보면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원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자들은 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단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내적으로 어떤 성질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단자들로 이루어진 세계는 한 상태를 다른 상태와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변화 가능성 을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 3-2-3-1-1-1> 그렇지만 단자들은 그 어떤 고유한 성질들을 소유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전혀 존재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복합된 것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단지 그의 단순한 구성 요소들로부터만 유래하므로 단순한 실체들이 그들의 고유한 성질을 통하여 구별되지 않는다면 사물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밝혀낼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단자들이 고유한 성질이 없고 결과적으로 서로 구별이 불가능하다면-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양적인 구별도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간이 빈틈없이 충만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운동이 일어날 때 모든 장소는 항상 지금까지의 내용과 동일하게 될 단 하나의 내용만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사물들의 한 상태는 다른 상태와 전혀 구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8)

#### 3.2.3.2. 상호 구별의 원리

< 3-2-3-2-1> 단자들은 내적인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질을 통하여 모든 단자들이 서로 구별되어 한다. 『형이상

학 논고』에서 라이프니츠는 “두 개의 실체가 완전히 동일하고 단지 수적으로만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단자론』에서는 이에 대한 이유로 우주에는 서로 동일한 두 개의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고 있지만, 이것은 설득력 있는 이유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주 안에 완전히 동일한 사물이 있는지 여부는 경험적으로 밝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후에 신 존재증명을 통하여 신의 완전성이 확립되고 난 후에 라이프니츠는 신의 완전성을 근거로 완전히 동일한 두 개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론한다. 완전하다는 것은 가급적 다양하고 그러면서도 이들의 지배하는 법칙이 단순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단자들을 창조했다면, 어느 두 단자도 서로 동일하게 창조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자론』에서는 신의 창조를 전제하고 동일한 실체의 존재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변화무쌍함과 다양함을 설명하는 근거로서의 단자의 특성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인 근거를 이유로 들어서 동일한 단자의 존재 불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단자들 간에 서로 구별되는 실체는 바로 개체이다. 라이프니츠는 『형이상학 논고』에서 ‘단순한 실체’라는 표현보다 ‘개체적 실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 데, 이 개체적 실체란 세상에 유일무이한 개별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모든 단자는 바로 절대적 개별자이다.

< 3-2-3-2-1-1> 심지어 모든 개별적인 단자들은 모든 다른 단자들과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연에는 서로 완전히 동일하고 내적이거나 내적인 규정에 근거한 차이가 발견될 수 없는 두 개의 사물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9)

### 3.2.3.3. 지각

#### 3.2.3.3.1. 단자들의 변화 내용

< 3-2-3-3-1-1> 단자들을 서로 구별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들은 내적 특성 또는 상태들인데,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내적 특성 또는 상태들을 지각(perceptio)라고 부른다.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인 지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각인데,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지각의 내용들은 외적 대상이 아니라 단자들의 내적 상태, 즉 관념이다. 단자에게 있어 변화란 이 지각의 변화에 다름 아니다. 단자들의 지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들의 지각을 통하여 경험하는 바와 같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만일 단자들에게 이러한 지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자는 외적 형태의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 3-2-3-3-1-1-1> 그러나 변화의 원리 외에도 또한, 그것을 통하여 어떤 단순한 실체들의 특수화와 다양성이 생기게 되는 변화하는 것의 특수성이 존재해야 한다.(12)

< 3-2-3-3-1-1-2> 단일성 또는 단순한 실체 안에서 다수성을 포함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일시적인 상태가 사람들이 지각(perception)이라고 부르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14)

#### 3.2.3.3.2. 단일성 속의 다수성

< 3-2-3-3-2-1> 단자는 단순하여 부분이 없고 분할이 불가능한데, 내적 상태인 지각은 다양하다. 라이프니츠는 이것을 단일성 속의 다수성이라고 부른다. 실체는 우유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성질들이 변화할 때 불변하는 기체이다. 단일한 것은 이 기체에 해당한다. 그리고 다수인 것은 실체의 우유적 성질들이다.

< 3-2-3-3-2-1-1> 이 특수성은 필연적으로 단일성 또는 단순성 속에 다수성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적인 변화는 점차로 발생하는 까닭에, 어떤 것은 변화하고 어떤 것은 불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단순한 실체는 부분을 포함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다수의 특성들과 관계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13)

< 3-2-3-3-2-1-2>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가장 사소한 생각이 대상 안에 있는 다양성을 포괄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 자신이 단순한 실체 안에 있는 다수성을 경험한다. 이에 따라 영혼을 단순한 실체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단자 내부에 있는 이 다수성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베일씨도, 그의 백과사전 로라리우스 항에서 그랬듯이, 여기서 어떠한 어려움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16)

### 3.2.3.3. 데카르트 정신 실체 비판

< 3-2-3-3-3-1> 라이프니츠는 지각을 모든 실체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즉 모든 실체는 지각을 가져야 하고 지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체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데카르트는 지각 대신에 사유란 속성을 갖는 것을 비물질적 실체로 보았고, 사유하지 않고 따라서 이성을 가지지 않는 동물의 영혼은 물질이라고 간주하였다. 데카르트의 정신 실체의 정의에 의하면 실체는 사유하는 동안에만 존재하게 되고 사유하지 않는 동안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실신 상태에서는 정신이 사유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죽음과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죽음의 상태에서는 육체는 정신과 분리되어 존재하므로, 육체와 분리된 정신의 존재를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영혼 불멸에 대해서도 육체의 죽음 후에 홀로 남은 정신이 불멸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 3-2-3-3-3-1-1> 단일성 또는 단순한 실체 안에서 다수성을 포함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일시적인 상태가 사람들이 지각(perception)이라고 부르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지각은, 아래에서 보게 되듯이, 통각(apperception) 또는 의식과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테 카르트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지각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했는데, 바로 이 점에서 그들은 커다란 실수를 범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또 그들로 하여금 단지 정신만이 단자이고 동물의 영혼도 또 다른 엔텔레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가정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또한 대중들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실신상태를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죽음과 혼동하였고, 이로써 그들은 다시 전적으로 육체를 갖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스콜라 철학자들의 편견에 빠지게 되었다. 그것은 심지어 영혼의 불멸성에 관하여 잘못된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었다.(14)

### 3.2.4. 변화 가능성

#### 3.2.4.1. 변화의 필연성

< 3-2-4-1-1> 현상세계는 변화하고 있고, 단자는 현상 세계의 근거이기 때문에, 현상 세계의 변화를 설명하려면 단자에게서 변화의 원리를 찾아야 한다. 현상 세계의 모든 변화는 연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단자도 변화하도록 되어있고, 또 연속적으로 변한다고 주장한다. 단자는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단자의 변화는 외적인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적 변화여야 한다. 라이프니츠는 왜 세계가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플라톤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라이프니츠는 이 세계가 가능한 한 가장 완전한 세계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왜 세계는 변하지 않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제시했어야만 할 것이다.

< 3-2-4-1-1-1> 나아가서 나는, 모든 창조된 존재는, 따라서 창조된 단자도 마찬가지로, 변화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변화는 모든 단자에게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간주한다.(10)

### 3.2.4.2. 변화의 원리

< 3-2-4-2-1> 단자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없다. 단자는 내적인 변화를 한다. 따라서 이 내적인 변화의 원리는 내부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 3-2-4-2-1-1> 이미 언급한 사실로부터, 외부의 원인은 단자의 내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단자들의 자연적인 변화는 내적인 원리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진다.(11)

### 3.2.4.3. 욕구

< 3-2-4-3-1> 라이프니츠는 단자의 변화의 내적 원리를 욕구(appetitus)라고 부른다. 욕구는 지각과 함께 실체를 이루는 근본적 특성이다. 욕구를 통하여 단자 안에 미리 잠재적인 형태로 내재되어 있던 지각은 끊임없이 현실화되며 변화하는 것이다.

< 3-2-4-3-1-1> 변화 또는 한 지각으로부터 다른 지각으로의 이행을 야기시키는 내부 원리의 활동은 욕구라고 불릴 수 있다. 여기서 욕구는 얻고자 애쓰는 지각에 항상 완전하게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항상 부분적으로는 성취를 하며, 이리 하여 새로운 지각에 이르게 된다.(15)

### 3.2.4.4. 지각 변화의 방식

< 3-2-4-4-1> 단자에 있어서 지각은 욕구를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 이러한 변화는 연속적이다. 즉 지각의 변화는 비

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면, 잠들기 전의 지각 상태와는 단절된 지각 상태를 의식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각의 변화가 비약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미세한 지각이 존재하고 있었고, 미세한 지각의 연속적인 변화의 결과로 잠에서 깨어난 상태에서의 지각에 이르게 된 것이다.

< 3-2-4-4-1-1> 그런데 단순한 실체들의 모든 현 상태는 그들의 앞선 상태의 자연스런 결과이고 따라서 현재는 미래를 자신 안에 품고 있다. (22)

< 3-2-4-4-1-2> 나아가서 우리가 마침 상태에서 깨어날 때 우리의 지각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지는 못 했더라도 그 바로 직전에 이미 우리는 지각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운동은 자연히 운동으로부터만 발생할 수 있듯이, 지각은 자연히 다른 지각으로부터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

### 3.3. 단자의 종류

< 3-3-1> 모든 단자는 비물질적 존재이고, 단순하여 분할이 불가능한 존재, 즉 비연장적 실체이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실체론과 비교하면 실체는 한 가지 종류뿐이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의 실체에게도 완전성의 등급 차이에 따른 실체의 구분이 존재한다. 단자의 종류는 지각의 판명성에 따라 구별된다.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지각의 판명성의 정도는 연속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이 세계에는 무수히 다른 등급의 단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대표적인 단자의 종류인 아주 단순한 단자와 감각을 가진 단자인 동물의 영혼, 그리고 이성을 갖는 단자인 정신 세 가지 종류의 단자를 구분한다.

### 3.3.1. 지각의 구분

< 3-3-1> 모든 단자는 지각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모든 단자들의 지각은 명석 판명한 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 차이는 연속적이다. 따라서 명석 판명성의 차이에 따라 무수한 등급의 차이를 갖는 단자들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편의상 의식되지 않는 미세 지각과 감각을 동반하는 지각, 통각을 동반하는 지각으로 구분한다.

#### 3.3.1.1. 미세 지각

< 3-3-1-1-1> 라이프니츠는 단자들을 엔텔레키와 영혼, 그리고 정신으로 구분하는데 엔텔레키가 가지고 있는 지각은 매우 미세하여 거의 의식되지 않는 상태의 지각이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들이 지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착각을 한다. 엔텔레키의 상태는 우리가 꿈을 꾸지 않고 잠들어 있는 상태와 같은 상태의 단자이다. 잠자고 있을 때 우리는 지각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우리가 잠 잘 때에는 지각을 갖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각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거나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각을 갖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단지 아주 미세하여 의식되지 않는 지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지각은 단지 연속적으로만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잠들기 전의 지각과 단절된 지각을 갖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은 의식되지 않은 지각의 연속적 변화의 결과로 깨어날 때의 지각이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 3-3-1-1-1-1>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떤 구별되는 지각도 갖지 않는 상태, 따라서 예를 들면 기절이나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수면이 경우를 경험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영혼은 단순한 모나드와 명백히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않고 영혼이 다시 그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영혼은 단순한 모나드보다는 더 많은 어떤 것이다. (20)

< 3-3-1-1-1-2> 그러나 이로부터 단순한 실체가 어떠한 지각도 갖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이유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지각에 다름이 아닌 어떤 활동 없이는 또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것도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아주 많은 다수의 작은 지각들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맴돌 때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어지럼을 느끼는 것처럼, 죽음은 동물을 잠시 동안 이러한 상태로 옮겨 놓을 수 있다.(21)

### 3.3.1.2. 감각을 동반하는 지각

< 3-3-1-2-1> 동물의 영혼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 라이프니츠는 이것을 동물들이 감각 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추론한다. 감각은 단자에게 기억을 가능하게 한다. 감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동일한 강도의 감각일 경우에는 반복되면 될수록 기억이 명확해진다. 따라서 라이프니츠는 기억을 감각에 고유한 성질로 보는 것이다. 감각과 이에 수반하는 기억은 영혼의 등급에 있는 단자가 가지고 있는 지각의 특징이다.

< 3-3-1-2-1-1> 이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지각 안에서 어떤 뚜렷한 특징과 어떤 보다 높은 감각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마취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실제로 이것은 아주 단순한 모나드들의 상태이다.(24)

< 3-3-1-2-1-2> 다량의 광선이나 공기 진동을 집중함으로써 그들이 결합하여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이 동물에게 감각 기관을 부여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또한 자연이 동물에게 어떤 탁

월한 지각들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후각과 미각, 촉각,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다른 감각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이다. 영혼에서의 과정이 감각 기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곧 설명할 것이다.(25)

### 3.3.1.3. 통각을 동반하는 지각

< 3-3-1-3-1> 라이프니츠는 또 통각(apperception)을 갖는 지각을 구분한다. 통각이란 자의식을 의미한다. 『자연과 은총의 이성적 원리』에서 라이프니츠는 통각을 단자의 내적 상태, 즉 지각에 대한 반성적 인식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통각을 갖는 지각이란 자신이 무엇을 지각하고 있다는 의식을 동반하는 지각이다. 이러한 지각은 이성을 가진 단자에게서만 가능한 것이다.

< 3-3-1-3-1-1> 단일성 또는 단순한 실체 안에서 다수성을 포함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일시적인 상태가 사람들이 지각(perception)이라고 부르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지각은, 아래에서 보게 되듯이, 통각(apperception)이 또는 의식과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데카르트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지각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했는데, 바로 이 점에서 그들은 커다란 실수를 범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또 그들로 하여금 단지 정신만이 단자이고 동물의 영혼도 또 다른 엔텔레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가정에 이르게 하였다.(14)

## 3.3.2. 명칭의 구분

### 3.3.2.1. 엔텔레키

< 3-3-2-1-1>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모든 실체는 지각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체의 완전성에 따라, 단순히 지각만을 가지고 있는 실체, 감각을 가지고 있는 실체,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실체 등 무수한 등급으로 실체를 구별할 수 있다. 가

장 낮은 등급의 실체는 단순히 지각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각도 너무 미세하여 거의 의식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단자에 엔텔레키라는 이름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은 단지 편의상의 명칭일 뿐이다. 라이프니츠는 모든 단자들을 때로 ‘단순한 실체’, ‘개체적 실체’, ‘영혼’, ‘엔텔레키’, ‘실체적 형상’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감각이 없는 아주 열등한 등급의 단자를 특별히 ‘엔텔레키’라고 부르기도 한다. 엔텔레키란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인데, 라이프니츠는 이를 헤르몰라우스 바바루스(Hermolaus Barbarus)의 라틴어 번역을 따라서 ‘perfectihabia’(완전성의 포함자)로 이해한다. 라이프니츠는 변화의 목표를 완전성으로서 자신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실체를 엔텔레키라고 부른다. 즉 그는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변화 또는 활동의 내적 원리라는 의미에서 ‘실체적 형상’을 엔텔레키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 3-3-2-1-1-1> 우리는 모든 단순한 실체들 또는 창조된 모나드들에게 엔텔레키라는 이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자신 안에 어떤 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ἔχουσι τὸ ἐντελέχεῖ*). 그들은 자신을 자신의 내적 활동성의 근원으로 그리고 소위 비물질적인 자동 기계로 만드는 일종의 자족성(*ἀυτάρκει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18)

### 3.3.2.2. 영혼

< 3-3-2-2-1> 감각이 없고 단순한 지각만을 가진 단자를 엔텔레키라고 부르는데 반해, 감각을 가지고 있는 단자를 라이프니츠는 영혼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동물의 영혼이 감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단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혼’이라는 명칭도

67

엔텔레키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단자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영혼에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단자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단자를 라이프니츠는 특별히 정신이라고 부른다.

< 3-3-2-2-1-1> 우리가 위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각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영혼’이라고 부른다면, 모든 단순한 실체 또는 창조된 모나드들은 영혼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각은 단순한 지각보다 더 많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단지 지각만을 가지고 있는 단순한 실체들에게는 일반적인 명칭인 ‘모나드’ 또는 ‘엔텔레키’로 충분할 것이다. 이에 대해 영혼이란 명칭은 지각이 판명하고 기억에 의해 동반되는 모나드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19)

### 3.3.2.3. 정신

< 3-3-2-3-1> 라이프니츠는 이성을 가진 단자들을 특별히 정신이라고 부른다. 정신도 지각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단자들과 공통적이다. 그러나 정신은 이성을 통하여 영원한 진리의 인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단수한 감각만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과 구별된다.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은 이성에게 매우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 그것은 정신이 이성을 통하여 신의 법칙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은 모든 단자들에게 법칙을 부여하는데, 신의 법칙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단자들은 자연법칙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성을 통하여 자신의 법칙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인 정신에게는 자연 법칙을 부여하지 않고, 스스로 신의 법칙을 인식하고 이에 따르는 법칙, 즉 도덕 법칙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 3-3-2-3-1-1> 그러나 필연적이고 영원한 진리의 인식은, 우리를 자신과 신을 인식하도록 끌어 올림으로써 우리를 단순한 동물들과 구별 해주고 이성과 학문을 소유한 상태로 인도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이성적 영혼 또는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29)

< 3-3-2-3-1-2> 정신 또는 이성을 가진 영혼으로 말하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는 모든 생명체나 모든 동물들은 근본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즉 동물과 영혼은 단지 세계와 함께만 생성될 수 있고 또한 단지 그와 함께만 소멸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성을 가진 생명체들은, 그들의 작은 정충들이, 그들이 단지 정충인 한, 다만 통상적인 또는 감각적인 영혼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선택된 정충들이 실제적인 수태를 통하여 인간적인 본성을 얻게 되자마자, 그들의 감각적인 영혼은 이성의 단계로 그리고 정신으로 고양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82)

#### 4. 세계

< 4-1>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세계는 무수한 단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감각에 나타나는 물질 세계는 단지 현상이고 정신 안에 있는 관념의 세계일뿐이다. 실재의 세계, 즉 정신의 외부에 있는 세계는 무수한 비물질적 실체인 단자들의 연속적인 집합인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단자들의 특성만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본성을 이해하려면 집합으로서의 실체, 즉 단자들 간의 관계와 질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라이프니츠의 세계의 구성에 대한 이론, 즉 창조론은 신의 오성 안에서 신이 가능적 단자들의 집합을 어떻게 구성하고 질서를 부여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찰로 현실 세계에 있어서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의 근원을 해명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 4.1. 단자들 간의 상호 관계

### 4.1.1. 물리적 영향과 관념적 영향

#### 4.1.1.1. 물리적 영향

< 4-1-1-1-1> 단자들은 서로 상호 작용을 하지 않는다. 라이프니츠는 단자들은 차이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단자들이 서로 물리적인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4.1.1.2. 관념적 영향

< 4-1-1-2-1> 단자들은 서로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현상 세계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인다. 라이프니츠는 이것을 단자들 간의 관념적 영향으로 설명한다. 관념적 영향이란 신이 자신의 관념 안에서 단자들이 서로 상응하도록 하는 조정을 통하여 마치 물리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듯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유한한 실체인 단자들은 서로 다른 단자에게 아무런 물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라이프니츠는 무한한 실체인 신은 유한한 실체에게 관념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영향까지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관념적인 영향만으로도 단자들의 질서를 규정하는 데 충분하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의 관념적 영향은 예정 조화설의 주요 요소이다. 즉 신은 모든 단자들의 미래의 내부 지각을 예견함으로써 관련된 단자들이 마치 상호 작용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정을 하였다는 것이 예정 조화설이다. 미래의 지각에 까지 관념적 영향을 확대한 것이 바로 예정 조화설인 것이다.

< 4-1-1-2-1-1> 그러나 단순한 실체들에 있어서 한 모나드가 다른 모나드에 미치는 영향은 단지 관념적 영향만이 가능하다. 이 관념적 영향은 단지, 한 모나드가 신의 관념들 안에서, 신이 태초에 다른 모나드들을 조정할 때 이미 그를 고려하였다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한에 있어, 신의 매개를 통해서만 작용된다. 왜냐하면 창조된 모나드는 다른 모나드의 내부에 어떠한 물리적 영향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만 하나의 모나드가 다른 모나드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51)

## 4.2. 능동과 수동

### 4.2.1. 일상적 의미에서의 능동과 수동

< 4-2-1-1> 일반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두 주체들 간에 한 쪽이 작용을 하면 다른 쪽은 작용을 받는다. 작용을 하는 쪽을 능동이라고 하고, 작용을 받는 쪽을 수동이라고 한다. 이 때 능동적인 주체와 수동적인 주체의 지각을 보면 능동적인 주체는 자신이 작용을 가한다는 사실을 의식한다. 그러나 수동적인 주체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라이프니츠는 지각이 판명한 상태에 있는 주체는 능동이라고 하고 지각이 모호한 상태에 있는 주체는 수동적이라고 한다. 판명한 지각을 가진 것이 모호한 지각을 가진 것보다 더 완전하므로 능동과 수동은 서로 작용하는 주체들 간에 상대적으로 더 완전한 주체가 능동이고 덜 완전한 주체가 수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 4-2-1-1-1> 우리는 어떤 피조물이 완전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것은 외부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불완전한 피조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작용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우리는 모나드에 대하여 그것이 판명한 지각을 갖는 한 활동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모호한 지각을 가지고 있는 한 수동성을 부여한다.(49)

< 4-2-1-1-2> 우리가 어떤 피조물 안에서, 다른 것으로 이행을  
선험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한다면, 이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보다 더 완전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이 다른 것에 영  
향을 미친다고 말한다.(50)

#### 4.2.2. 관념적 영향에서의 능동과 수동

< 4-2-2-1> 단자들은 서로 간에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상 세계에서는 사물들 간에 상호 작용이 발생  
하는 것처럼 보이며, 또한 이 때 능동과 수동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라이프니츠는 이것을 실체의 영역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라이프니츠는 능동적 주체와 수동적 주체의 지각의  
판명성을 단자의 영역에 적용하여 두 단자가 서로 관념적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을 때, 보다 판명한 지각을 가진 단자를 능동  
적이라고 하고, 덜 판명하거나 모호한 지각을 갖는 단자를 수동  
적이라고 한다. 신은 이들에게 관념적 영향을 통하여 조정할 때,  
모호한 지각을 가진 단자를 판명한 지각을 갖는 단자에게 순응하  
도록 한다. 즉 신이 관념의 영역에서 단자들 간에 질서를 부여할  
때, 판명한 지각을 가진 단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모호한 단  
자들로 하여금 그에 따르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예정 조화의 한 원리이다.

< 4-2-2-1-1> 이렇게 피조물들에게서 능동과 수동은 상호적이다.  
왜냐하면 신은 두 단순 실체들을 비교함으로써 그들 각각에게서 한 실  
체에게 다른 실체를 순응시키도록 자신을 강요하는 근거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관점에서 능동적인 것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  
면 수동적이다. 다른 피조물 안에 발생하는 사건의 근거로 간주되는  
것이 그 안에서 판명하게 인식되면 그것은 능동적이고, 다른 피조물  
안에서 판명하게 인식되는 것 안에서 그 안에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근  
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에 그것은 수동적이다.(52)

### 4.3. 창조의 원리

#### 4.3.1. 가능한 세계

< 4-3-1-1> 라이프니츠에게 있어 창조란 신이 오성 안에서 먼저 서로 공존 가능한 가능한 단자들을 최대한 포함하는 집합들을 구성하고, 무한히 많은 가능한 단자들의 집합 중에서 최선의 집합을 선택하여 존재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가능한 단자들의 수는 무한히 많고 이들로 최대의 원소를 갖는 가능한 단자들의 집합을 구성하는데, 이 집합 안에는, 단자들 간에 질서가 존재해야 하므로 서로 공존 가능한 단자들만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단자들이 서로 공존 가능하다면 최대의 원소를 갖는 가능한 단자들의 집합은 하나만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단자들이 서로 공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능한 단자들의 수가 무한히 많기 때문에 공존 가능하지 않은 단자들의 수 또한 무한히 많을 것이고, 따라서 최대의 원소를 갖는 가능한 단자들의 집합도 무한히 많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 4-3-1-1-1> 그런데 신의 관념은 무한한 수의 가능한 세계를 포함하고 있고 그 중에서 단지 하나의 세계만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신의 선택에 대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의 세계를 다른 세계들보다 더 선호하도록 규정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53)

#### 4.3.2. 선택의 원리

< 4-3-2-1> 신은 가능한 세계라고 불리는 이를 가능한 단자들의 집합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존재를 부여한다. 이것이 창조이다. 그런데 신은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므로 이들 중에서 하나의 세계를 선택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신은 항상 완전성의 원리에 따라 선택을 한다. 가장 완전한 것은 질서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내용이 가장 풍부한 것을 말한다. 신은 이러한 세계를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은 자신의 오성 안에 있는 가능한 세계 중에서 구성원이 가장 풍부하면서도 가장 질서가 있는 집합을 선택하여 존재를 부여한다. 따라서 현존하는 세계는 가능한 세계들 중에서 최선의 세계이다.

#### 4.3.2.1. 완전성에 따른 존재의 요구

< 4-3-2-1-1> 신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완전성에 따라 선택한다. 모든 관념이나 본질은 어떤 실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실재성의 크기에 비례하여 존재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무한한 실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나 유한한 존재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의 선택을 통하여 존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신의 지혜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완전성의 정도를 인식한다. 그리고 그의 선은 완전한 것을 선택하고 그의 능력이 선택된 대상에게 존재를 부여한다.

< 4-3-2-1-1-1> 이 근거는 오로지 적절성 내지는 이 세계들이 포함하고 있는 완전성의 정도 안에서 찾아질 수 있다. 모든 가능한 것은 자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완전성의 정도에 따라 존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4)

< 4-3-2-1-1-2> 그리고 신의 지혜를 통하여 인식되고, 그의 선을 통하여 선택되고, 그의 능력을 통하여 창조되는 최선의 것이 존재하게 되는 원인은 여기에 있다. (55)

#### 4.3.2.2. 선택의 기준

< 4-3-2-2-1> 신은 그의 지혜에 따라 여러 가능성 세계들 중

에서 가장 완전한 것을 선택한다. 가능한 실체들로 이루어진 집합 들인 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것이란 질서가 가능한 한 단순 하면서도 가능한 한 최대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세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신을 라이프니츠는 가장 탁월한 건 축가에 비유한다. 탁월한 건축가란 가능한 한 가장 적은 비용을 가지고 가능한 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건축가이다.

< 4-3-2-2-1-1> 이와 같이 하여 우리는 가능한 최고의 질서를 갖는, 가능한 한 가장 큰 다양성을 얻게 된다. 즉 우리는 이와 같이 하여 가능한 한 가장 큰 완전성을 얻게 된다. (58)

#### 4.4. 지각의 질서와 단자들의 질서

##### 4.4.1. 예정 조화

< 4-4-1-1>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에서는 다섯 가지의 관점에 서의 예정조화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개별적 단자들 사이에 상호 작용을 하지 않지만, 신의 예견과 조정을 통하여 각 단자들의 지각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별적 단자의 내부 지각은 단자들의 집합인 외부 세계를 감각을 통하여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감각을 통하여 받아들인 것처럼, 관념인 지각의 세계가 단자들로 구성된 실재의 세계와 대응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물리 법칙에 따라 전개되는 지각 내 현상 세계의 변화가 목적인에 따라 작용하는 단자의 욕구의 전개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영혼과 그에 귀속되는 육체 사이에 상호 작용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조화를 이룬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성을 가진 단자들 전체의 집합인 은총의 왕국과 이성이 없는 단자들 전체의 집합인 자연의 왕국 사이

에 한쪽에서는 자유에 따라 행위하고 다른 쪽에서는 자연 필연성에 따라 작용하지만 서로 통일된 우주를 형성하도록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에 가장 근원적인 예정 조화는 첫 번째 예정 조화이고 다른 예정 조화는 이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 4.4.1.1. 단자들 사이의 예정 조화

< 4-4-1-1-1> 세계의 질서는 신이 자신의 오성 안에서 가능해 단자들의 집합을 구성할 때, 단자들 간에 서로 조화되도록 배치함으로써 형성된다. 이때 단자들의 배치 방법은 각 단자들의 내부 지각이 결과적으로 단자들의 배열인 우주의 모습과 대응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신은 서로 연관되는 단자들 간에 능동과 수동의 원리를 고려하고, 또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각까지도 예견하여 매순간 모든 단자들의 지각이 서로 상응하도록 단자들을 배열함으로써 예정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지각이란 일반적으로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기 때문에 외부 세계가 선행하고 지각이 이에 상응하도록 결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단자들의 세계에서는 신의 오성 안에서 개체적 실체인 단자와 그의 내부 지각이 선행하고 외부 세계인 단자들의 배열이 이에 상응하도록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부 지각은 외부의 우주 모습에 상응하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모든 단자들의 지각을 우주의 거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 4-4-1-1-1-1> 모든 창조된 사물들을 개별자 각각에, 그리고 각 개별자들을 다른 모든 것에 결합 또는 순응시킨 것은, 모든 단순한 실체가 다른 실체들의 총체를 표현하는 관계를 포함하고 그 결과로 그는 살아 있고 영속하는, 우주의 거울이 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56)

#### 4.4.1.2. 관념의 세계와 실재의 세계 사이의 대응

< 4-4-1-2-1> 단자들의 내부 지각은 관념의 세계이다. 그리고 단자 외부의 세계인 단자들의 집합으로서의 세계는 실재로서의 세계이다. 그러나 단자는 상호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지각이 외부 세계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부지각의 질서와 외부 세계의 질서가 마치 서로 연결된 것처럼 일치한다. 즉 관념으로서의 지각 세계의 변화와 실재로서의 단자들의 집합의 변화가 서로 상응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이 실체인 단자들을 배열함에 있어 단자의 내부 지각을 통찰함으로써 단자의 배열을 지각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체의 집합으로서의 육체에 있어서의 변화는 단자의 내부 지각의 변화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 4-4-1-2-1-1> 이러한 원리들은 나로 하여금 영혼의 유기적 육체와의 조화 또는, 더 적절하게 말하자면, 일치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혼은 그의 고유한 법칙을 따르고 육체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법칙을 따른다. 그러나 양자는, 실체들이 모두 하나의 동일한 우주의 표현이기 때문에, 모든 실체들 사이에 예정된 조화를 통하여 서로 합치된다.(78)

#### 4.4.1.3. 작용인이 왕국과 목적인의 왕국 사이의 조화

< 4-4-1-3-1> 단자의 지각의 내부에서 관념으로서의 사물의 변화는 자연 법칙에 따른다. 즉 작용인에 따라 작용한다. 그리고 단자의 욕구 자체는 목적인에 따른다. 그러나 이 두 세계 사이에도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이것은 지각 안에서 관념으로서의 사물의 운동이 작용인을 따르는 것으로 현상되지만, 그 근본 원인은 욕구에 의해 지각이 연속적으로 변함으로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이것은 마치 영화 스크린 안에서 물체의 운동은 영사기 내부에서 필름이 움직임에 기인하는 원리와 동일하다. 영사기의 운동에 해당하는 욕구는 목적인에 따라 작용하지만, 이의 투영인 지각내의 사물의 운동은 작용인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세계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 4-4-1-3-1-1> 영혼은 욕구, 목적과 수단을 통하여 목적인의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 육체는 작용인 또는 운동의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 그리고 이 두 왕국, 즉 작용하는 원인의 왕국과 목적인의 왕국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 (79)

#### 4.4.2. 지각의 다양성

##### 4.4.2.1 단자의 배열 위치에 따른 다양성

< 4-4-2-1-1> 단자들의 배열인 우주는 단일하기 때문에, 모든 단자들이 이를 반영한다면 단자들의 내부 지각도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각 단자들의 지각이 표상하는 대상 또는 내용에 있어서는 모든 단자들에게 있어서 동일하다. 그러나 각 단자들의 배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각의 판명한 부분이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이다. 신의 지각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이 판명하다. 즉 신은 전 우주에 대하여 판명한 지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한한 존재들에게 있어서는 단자들의 완전성의 정도에 따라 판명성이 다르며, 동일한 등급의 단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처한 위치에 따라 판명한 부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사정을 서로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도시를 조망하는 사람들의 시야에 비유하고 있다. 동일한 도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내용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판명하게 식별하는 것은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 4-4-2-1-1-1> 그리고 상이한 측면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동일한 도시가 전혀 다르게, 말하자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무한히 많은 단순한 실체들로 인하여 그 만큼 많은 상이한 세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세계들은 각 모나드의 상이한 관점에서 보여진 하나의 동일한 세계에 대한 조망들인 것이다. (57)

#### 4.4.2.2. 단자의 완전성의 등급에 따른 다양성

< 4-4-2-2-1> 단자들의 지각은 단지 단자들의 배열 위치에 상응하는 판명한 부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자들은 완전성의 정도 차이에 따라 지각의 판명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즉 완전한 단자일수록 더 많은 부분이 판명하고, 덜 완전한 단자들은 지각의 작은 부분, 즉 자기의 위치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응하는 부분의 지각만이 판명하고, 아주 열등한 엔텔레키들은 심지어 판명한 지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도 하다. 이에 대해 신의 지각은 모든 부분이 판명하다. 즉 신은 전 우주를 동시에 판명하게 지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4-4-2-2-1-1> 그 밖에도 우리는 이로부터 왜 사물들이 어떤 다른 경과를 취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선형적인 근거를 통찰할 수 있다. 신은 전체의 질서를 정함에 있어서 모든 개별적인 부분들과 특히 본성에 의해 표상하도록 창조된 모든 개별적인 모나드들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비록 세계의 개별적 사물들과 관련해서는 이 표상이 모호하고 단지 사물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만, 즉 그 모나드에 대해서 가장 가깝거나 가장 큰 사물에서만 판명하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모든 모나드는 바로 신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로 하여금 사물의 단 한 부분만을 표상하도록 제한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에서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상이한 종류의 인식에서 모나드들은 그들의 제한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관계는 모두 모호한 방식으로 무한한 곳까지, 즉 전체에까지 미친다. 그러나 그들은 지각의 판명성의 정도를 통하여 한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60)

## 5. 복합 실체

< 5-1> 복합 실체란 단순한 실체들의 결합체를 말한다. 복합 체에 있어 그 구성 요소들이 실체라면, 당연히 그들의 결합체도 실체라고 볼 수 있다. 라이프니츠 철학에 있어서는 우주 전체가 실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기서 복합 실체라 함은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내에서 특별히 긴밀한 연관 관계로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실체들의 결합체를 말한다. 이들은 실제로는 비물질적 존재들이지만, 각 단자들의 지각 안에 현상으로 나타날 때에는 개개의 사람이나, 동물, 식물,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 5.1. 단자들의 존재 방식

#### 5.1.1. 창조된 단자들과 근원적 단자의 존재 방식

##### 5.1.1.1. 창조된 단자의 존재방식

< 5-1-1-1-1> 라이프니츠는 인간과 동물의 경우를 일반화하여 모든 유한한 단자들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로서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스피노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스피노자는 정신과 물체는 실체가 아니라, 다만 유일한 실체인 자연의 서로 다른 양태이지만, 모든 양태로서의 개체들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로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식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무생물처럼 보이는 것도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감각이 없는 단순한 단자인 엔텔레키가 육체와 결합하여 생명체가 되고, 감각을 갖는 영혼이 육체와 결합하여 동물이 된다고 본다. 여기서 육체란 물질적 육체가 아니라 아주 열등한 단자들의 집합체이다.

라이프니츠는 여기서 형이상학적으로 엄밀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주의자들이 지동설을 주장하면서도 일상 생활에서 천동설의 용어에 따라 태양이 뜨고 진다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복합된 것은 단자들의 결합체로서 비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상 용어에 따라 육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 5-1-1-1-1-1> 그의 엔텔레키 또는 영혼인 한 모나드에 귀속되는 육체는 엔텔레키와 결합하여 우리가 생명체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하고, 영혼과 결합하여 동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한다.(63)

### 5.1.1.2. 근원적 단자의 존재 방식

< 5-1-1-2-1> 라이프니츠는 단지 신만이 육체 없이 순수한 정신으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왜 신은 단독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 5-1-1-2-1-1> 마찬가지로 육체가 없는 순수한 정신과 같이 전적으로 분리된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만이 전적으로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72)

## 5.1.2. 유기체와 무기체

### 5.1.2.1. 유기체

< 5-1-2-1-1> 라이프니츠는 모든 단자들의 존재 방식은 하나의 지배적인 단자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보다 열등한 단자들의 결합체, 즉 육체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 이 육체는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기체란, 육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배적인 단자와 이를 둘러싼 보다 열등한 단자들의 집합인 일종의 육체의 결합체들로 이루어진 여러

기관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즉 육체의 부분인 각 지체나 장기와 같은 기관은 다시금 하나의 지배적인 단자와 그 보다 열등한 단자들의 집합인 육체와의 결합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관은 다시금 하위의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즉 이 기관 또한 하나의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다수의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무한히 반복적으로 계속된다.

#### 5.1.2.1.1. 생명체의 육체

< 5-1-2-1-1-1> 생명체의 육체는 유기적이다. 유기적이란 한 전체의 각 부분이 다시금 전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생명체의 육체는 각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라이프니츠는 이 각 기관들도 그가 속한 육체와 마찬가지로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 즉 하나의 지배적인 단자와 그보다 열등한 단자들의 집합의 결합체로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 5-1-2-1-1-1-1> 그런데 생명체 또는 동물의 이 육체는 항상 유기적이다. 왜냐하면 모든 모나드는 각각에 고유한 방식으로 우주를 표상하는 거울이고, 우주는 완전한 질서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표상하는 것 안에, 즉 영혼의 지각 안에 그리고 이와 함께 또한 그에 따라 영혼 안에 우주가 표상되는 육체 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질서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63)

#### 5.1.2.1.2. 신적인 기계

< 5-1-2-1-2-1> 실재 세계에서 단자들의 결합체들은 일종의 기계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상 세계에서 인간이 만든 것으로 나타나는 기계들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공적으로 만든

기계의 부분들은 더 이상 기계가 아니다. 그러나 실재 세계의 단자들의 집합체들은 그 각 부분들이 다시금 기계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부 기계의 각 부분들은 다시금 기계와 같고, 이런 구조는 무한히 계속된다. 라이프니츠의 이러한 주장은 형이상학적 관점에서의 주장이다. 즉 현상 세계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통일된 개체로서의 생명체들만이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형이상학적 염밀성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그 각 부분들은 다시금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 육체의 각 부분들도 다시금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무한히 계속된다는 것이다.

< 5-1-2-1-2-1-1> 따라서 모든 생명체의 유기적 육체는 일종의 신적인 기계 또는 모든 인공적 자동기계를 무한히 능가하는 자연적인 자동기계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술을 통하여 만들어진 기계는 그 부분들 각각에 있어서도 기계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놋쇠바퀴의 텁니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인공적인 것이 아니고, 그 바퀴가 사용되는 기계에 관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감지하도록 하지 않는 부분 또는 조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연의 기계 또는 살아 있는 육체는 그의 가장 작은 부분에 있어서 조차도 무한에 이르기까지 기계이다. 바로 여기에 자연과 인공 사이, 즉 신적인 기술과 우리의 기술 사이의 차이가 존재한다. (64)

< 5-1-2-1-2-1-2> 자연의 창조주만이 이 신적이고 무한히 놀라운 예술품을 창조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물질의 각 조각은, 옛 사람들이 올바로 인식했듯이, 무한히 분할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끝없이 계속하여 분할되어 있고, 각 부분은 다시 부분으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들 중의 각각은 각자에게 고유한 운동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물질의 각 조각이 전 우주를 표현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65)

### 5.1.2.1.3. 물고기로 가득찬 연못의 비유

< 5-1-2-1-3-1> 라이프니츠는 유기체를 물고기로 가득 찬 연못 또는 식물로 가득 찬 정원으로 비유한다. 즉 유기체는 부분으로서의 기관들을 가지고 있는 데, 이 기관들은 하나의 통일체이기 때문에 유기체 자체는 하나의 물고기로 가득 찬 연못과 같고, 각 기관들은 다시금 물고기로 가득 찬 연못이고 이 기관들의 부분은 또 다시 물고기로 가득찬 연못과 같다는 것이다.

< 5-1-2-1-3-1-1> 물질의 각 조각은 식물들로 가득 찬 정원 그리고 물고기로 가득 찬 연못처럼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식물들의 각 가지, 동물의 각 지체, 그 체액의 각 방울은 다시금 그와 같은 정원 또는 연못이다. (67)

< 5-1-2-1-3-1-2> 이로부터 우리는 모든 살아있는 육체는 하나의 지배적인 엔텔레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지배적인 엔텔레키는 동물에게서는 영혼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살아 있는 육체의 지체들은 다시 다른 생명체들, 식물, 동물들로 가득 차 있고, 이들 각각은 다시금 그의 엔텔레키 또는 지배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다. (70)

### 5.1.2.2. 무기체

< 5-1-2-2-1>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우리에게 무기체로 보이는 모든 사물들도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각 부분들은 다시금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육체와 무기체의 구별은 실체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현상적 차원에서만의 구분일 뿐이다.

< 5-1-2-2-1-1> 그리고 비록 정원의 식물들 사이에 있는 땅과 공기, 또는 연못의 물고기들 사이에 있는 물 자체는 식물도 물고기도 아

나지만, 그들은 다시 그런 식물 또는 물고기들을 포함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한 종류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68)

< 5-1-2-2-1-2> 따라서, 우리가 약간 멀리 떨어져서 연못을 바라 보면 연못 안에 있는 물고기들 자체는 식별하지 못하고 물고기들의 혼돈된 운동이나 집단만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이 외관상으로만 그러할 뿐, 실제 우주 안에는 어떠한 황폐한 것도, 어떠한 불임의 것도, 어떠한 죽은 것도, 혼돈도, 혼란도 존재하지 않는다. (69)

## 5.2. 생명체의 변화

### 5.2.1. 변형론

< 5-2-1-1> 영혼과 육체의 결합,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지배적 단자와 이에 귀속된 보다 열등한 단자들의 집합 사이의 관계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다. 이들의 결합관계는 끊임없이 발전과 쇠퇴의 과정을 반복한다. 창조된 단자들의 존재 방식에 따르면 단자들은 결코 육체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라이프니츠는 윤회설을 부정한다. 윤회설이란 영혼이 죽은 육체를 떠나 홀로 존재하다가 다른 육체를 입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영혼은 육체를 끊이 없이 변경하지만, 이 과정은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영혼이 육체 없이 존재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이프니츠는 영혼의 육체변경과정을 곤충의 탈바꿈에 비유한다. 나비가 애벌래에서 번데기로 변화하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육체의 모습은 바뀌었지만 나비의 영혼은 전과 동일한 영혼이듯이, 모든 생명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육체를 바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형론은 통상적인 죽음을 부정하여 불사의 이론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변신론』에서 주장하는 영혼 불멸론

과 조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이프니츠는 모든 단자는 신의 파괴에 의하지 않고는 자연 과정에서 파괴되지 않지만, 이것만으로는 영혼 불멸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영혼이 불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파괴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생전의 의식까지 보존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생전의 선악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생전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하여 전혀 의식이 없다면, 그러한 영혼에 대하여 사후의 보상이나 처벌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변형론에 의하면 영혼이 육체를 바꿈으로서 의식까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영혼 불멸을 정당화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 5-2-1-1-1> 그러나 우리는 몇몇 사람들이 나의 이론을 오해함으로써 그랬던 것처럼, 각 영혼이 그에게 영구히 배정된 한 덩어리의 물질 또는 어떤 물질 조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영혼이 항상 그를 섬기도록 규정된 다른 낮은 생명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는 강물처럼 영속하는 흐름 속에 있고, 부분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이다. (71)

< 5-2-1-1-2> 이에 따르면 영혼은 점차로 서서히 그의 육체를 바꾼다. 따라서 그것은 결코 한 번에 그의 모든 기관들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종종 동물들에게서는 변형(metamorphose)이 일어난다. 그러나 결코 윤회(metempsychose)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육체가 없는 순수한 정신과 같이 전적으로 분리된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만이 전적으로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72)

< -2-1-1-3> 그 결과로 전적으로 새로운 번식과, 엄밀한 의미에서 육체로부터 영혼의 분리를 의미하는 전적인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퇴화와 감소이듯이, 우리가 번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발전과 성장이다. (73)

### 5.2.2. 번식

< 5-2-2-1> 라이프니츠는 번식 과정도 일종의 변형 과정으로 이해한다. 번식이란 생명체가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정충이 육체를 변형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오늘날의 이해와는 달리 정충도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정충이 난자와 결합을 통하여 영혼이 깃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충 상태에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정충은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육체의 변형과정을 거칠 뿐이라는 것이다. 수태란 정충이 보다 큰 육체로 변화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수많은 정자 중에서 수정에 성공한 정충은 보다 큰 육체를 입고 새로운 활동 무대로 환경을 끓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수정에 성공 못한 정충들도 생명 활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큰 육체로의 변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동물들이 생존 과정에서 자신의 육체를 끓임없이 변형시키듯이 그의 작은 육체를 다른 작은 육체로 바꾸는 생성, 증식, 소멸 과정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 5-2-2-1-1> 철학자들은 형상, 엔텔레키 또는 영혼의 근원에 대하여 항상 당혹스러워 했다. 그러나 식물, 곤충 그리고 다른 동물들에 대한 정밀한 연구를 통하여 자연의 유기적 육체가 결코 혼돈이나 부패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예비적 형태(Preformation)가 분명히 그 안에 들어 있는 정자로부터 생겨난다는 사실이 알려진 오늘날, 우리는 단지 유기체적 육체만 정자 안에 수태 전부터 이미 들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도, 한마디로 말하면 동물 자체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수태를 통하여 이 동물은 단지, 그것을 통하여 다른 동물이 될 수 있는 큰 변형을 할 수 있는 능력만을 획득한 것이다. 번식의 경우 외에 이와 유사한 어떤 것을 우리는 구더기가 파리로, 그리고 애벌레가 나비로 될 때, 볼 수 있다. (74)

< 5-2-2-1-2> 그들 중의 몇몇이 수태를 통하여 보다 큰 동물의 단계로 상승되는 동물을 우리는 정충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정충들 중에서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것들, 즉 다수는 다른 큰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성되고, 증식되고, 소멸된다. 그리고 단지 선택된 소수만이 보다 큰 무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75)

### 5.2.3. 죽음의 부정

< 5-2-3-1> 라이프니츠의 심신 이론에 의하면 영혼은 결코 육체와 분리되지 않고, 다만 육체를 새로운 육체로 변경하는 일만 되풀이 한다. 따라서 이런 이론은 영혼 불멸론만을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죽음까지도 부정한다. 그것도 이성을 가진 단자의 죽음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심지어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도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다. 다만 너무 섬세하여 우리에게 의식되지 않을 뿐이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생명체로 우주공간이 가득 차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형이상학적으로 일관성 있게 주장하기 위하여 생명체의 의미를 극단적으로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상식에 맞지 않게 우주 공간이 일반적 의미에서의 생명체로 가득 차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5-2-3-1-1> 그 결과로 전적으로 새로운 변식과, 엄밀한 의미에서 육체로부터 영혼의 분리를 의미하는 전적인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퇴화와 감소이듯이, 우리가 변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발전과 성장이다. (73)

< 5-2-3-1-2>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절반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는 동물이 자연 과정에서 결코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그것은 자연과정에서 소멸되지 않고,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산출도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적인 파괴와 죽음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후험적이고 경험을 통한 숙고는 위에서 선협적으로 연역된 나의 원리들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76)

< 5-2-3-1-3> 따라서 우리는 파괴가 불가능한 우주의 거울로서의 영혼만이 파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계가 가끔 부분적으로 파멸되기도 하고 유기체적인 육체를 벗거나 입기도 하지만, 동물 자체도 파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77)

### 5.3. 영혼과 육체 사이의 조화

#### 5.3.1. 심신상호 관계에 대한 예정 조화론

< 5-3-1-1> 데카르트의 실체 이원론은 정신과 물체의 영역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간주함으로써 물체 세계를 지배하는 자연법칙과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도덕 법칙의 양립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인간에 있어 정신과 육체간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데카르트는 인간에게만 예외적으로 서로 다른 실체인 정신과 육체 사이에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이것은 그의 실체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왜 이런 예외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근거도 제시할 수 없었다. 데카르트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실체들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실체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신이 이를 매개하여 조정함으로써 마치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정신과 육체가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부분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지만, 신의 전지전능함을 부정하

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단자는 창이 없다고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실체 간의 상호 작용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신은 전지 전능하기 때문에 데카르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실체들의 작용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에서는 신이 단자들의 집합으로써 가능 세계를 구축 할 때, 이미 모든 단자들의 미래에 전개될 지각을 예견함으로써 서로 상응하도록 이들을 배열하였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에게 있어 심신 상호 관계는 예정 조화론을 설명되고 있지만, 이 예정 조화론은 단자들 간의 예정 조화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 5-3-1-1-1> 이 체계에 의하면 육체는 마치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영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작용하고, 영혼은 마치 육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작용한다. 그리고 양자 모두 마치 한 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작용한다. (81)

### 5.3.2. 심신 상호 작용설 비판

< 5-3-2-1> 데카르트의 심신 상호 작용설은 서로 독립적인 실체 간에 상호 작용을 인정함으로써 그의 실체 개념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도 어긋난다. 데카르트는 물체의 본성을 연장성으로 파악함으로써 물체 안에 운동의 근원을 설명할 수가 없었고, 때문에 신이 물체를 창조할 때 물체 세계에 운동을 부여하였고, 이 신으로부터 시초에 부여받은 운동량은 연속적 창조 과정을 통하여 항상 보존된다고 함으로써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물체의 운동은 단지 충돌을 통하여 다른 물체에 전달될 수 있고, 이 운동의 전달은 직선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운동량 보존 법칙도 직선 방향의 운동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런 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데카르트의 심신 상호 작용설은 정신이 물체의 직선 방향 운동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단지 운동의 방향만을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라이프니츠 당시에는 운동량 보존 법칙은 모든 방향의 운동 성분과 관련하여 보존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하면 방향 전환에도 힘이 필요하게 되고 정신이 물체의 방향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면, 운동량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운동량 보존 법칙에 어긋나게 되므로, 심신 상호 작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5-3-2-1-1> 데카르트는, 물질 안에 있는 힘의 크기는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에게 어떠한 힘도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영혼이 육체의 운동 방향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의 시대에는 물질에 있어서 전체방향의 운동량 보존에 관한 자연 법칙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만일 그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는 나의 예정 조화의 체계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80)

## 6. 신국

< 6-1> 라이프니츠의 신국 개념 자체는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원래 성서에 나오는 개념을 어거스틴이 그의 『신국론』에서 사용함으로써 철학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개념이지만, 라이프니츠를 통하여 칸트에게 전승된다. 신국은 자율의 왕국이고, 목적의 왕국이다.

### 6.1. 신국의 구성

#### 6.1.1. 신국 신민으로서의 이성을 가진 단자들

< 6-1-1-1> 모든 단자들 중에서 이성을 가진 단자인 정신은

우주 안에서 매우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그것은 이성이 우주의 체계를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을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주의 체계를 모방한다함은 체계적인 학문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단자는 우주를 모사하는 거울이지만, 이성을 가진 정신은 학문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신을 모사하는 거울이다. 따라서 라이프니츠는 정신을 자신의 영역 안에서의 작은 신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신의 특징은 신과의 교통을 가능하게 하며, 신과 공동체를 구성하도록 한다. 이 신과의 공동체가 바로 신국 또는 은총의 왕국이다. 라이프니츠는 『단자론』에서 정신이 신과 더불어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유로서 단지 우주의 인식 능력을 들고 있지만, 1687년 7월 아르노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정신이 신의 의지, 즉 신의 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정신이 신과 더불어 신국을 구성하는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신은 이성을 가진 단자든, 이성을 갖지 않은 단자든 모든 존재에게 법칙을 부여하는데,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이 법칙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단자들에게는 타율적인 자연의 법칙을 부여 하지만, 신의 법칙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정신에게는 자율적인 도덕 법칙을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신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 6-1-1-1-1> 그러나 필연적이고 영원한 진리의 인식은, 우리를 자신과 신을 인식하도록 끌어 올림으로써 우리를 단순한 동물들과 구별 해주고 이성과 학문을 소유한 상태로 인도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이성적 영혼 또는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29)

< 6-1-1-1-2> 내가 이미 부분적으로 언급한, 통상적인 영혼과 정신들 사이의 다른 차이들 외에도, 영혼 일반은 피조물로 구성된 우주의 살아있는 거울 또는 모사이지만, 정신들은 그 외에도 신 또는 자연의

창조자 자체의 모사라고 하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들은 우주의 체계를 인식할 수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계구축기술을 시험하기 위하여 우주의 체계를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정신은 자신의 영역에서 말하자면 하나의 작은 신과 같기 때문이다. (83)

< 6-1-1-1-3> 이것은 정신들로 하여금 일종의 신파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84)

### 6.1.2. 신국의 군주로서의 신

< 6-1-2-1> 신국과 대립되는 개념은 자연의 왕국이다. 이것은 이성을 가지지 않은 단자들의 집합을 의미하지만, 또한 필연적인 자연 법칙에 지배되는 세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연은 기계이다. 라이프니츠는 자연 법칙에 지배되는 우주를 거대한 우주기계라고 부른다. 이러한 우주의 창조자로서의 신은 기계 제작자이다. 그러나 신국의 구성자로서의 신은 군주 또는 아버지로 불린다. 신국 안에서 정신들과 신의 관계는 신민들과 그의 군주 또는 자녀들과 그의 아버지와 같은 관계라는 것이다. 여기서 군주란 전제 군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민을 자율적으로 통치하는 계몽 군주를 의미한다.

< 6-1-2-1-1> 그리고 신은 그들에게 (신의 다른 피조물에 대한 관계가 그렇듯이) 단지 그의 기계에 대한 발명자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의 신민에 대하여 군주와 같은 존재, 심지어 그의 자녀에 대하여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다. (84)

### 6.1.3. 신국의 완전성

#### 6.1.3.1. 가장 완전한 통치

< 6-1-3-1-1> 신국은 가능한 가장 완전한 국가이고 신의 작

품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신적인 작품이다. 신국의 통치자는 모든 군주들 가운데 가장 완전한 통치자이다. 그는 억압과 강권에 의해 통치하지 않고 자율을 통해 통치한다. 그리고 그의 통치 하에서는 어떠한 선행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고, 어떠한 악행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없다. 즉 신의 통치는 가장 정의롭다.

< 6-1-3-1-1-1> 이로부터 우리는, 모든 정신들의 총체는 신국을, 즉 모든 군주들 가운데서 가장 완전한 군주의 통치 하에서만 가능한 가장 완전한 국가를 형성한다고 쉽게 추론할 수 있다. (85)

### 6.1.3.2. 도덕의 왕국

< 6-1-3-2-1> 신국은 또한 도덕적인 국가이다. 이것은 신국의 신민들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통하여 신의 의지를 인식하며 스스로 자신이 인식한 신의 의지에 순응하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에게 있어 도덕 법칙은 신의 의지 또는 신의 명령이다. 그러나 정신들은 신의 명령을 강제로 의식하며 타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로크나 버클리 같은 경험론자들은 유한한 정신들은 모두 정념이나 욕구를 따라 행위하기 때문에 신이 천국과 지옥 같은 보상과 처벌을 예고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도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에 의하면 신에 의한 법은 타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이성을 가진 정신들은 이성을 통하여 신의 의지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 6-1-3-2-1-2> 이 신국, 이 진정으로 보편적인 군주국은 자연적

인 세계 안에 있는 도덕적인 세계이고, 신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신적인 작품이다. 이 신국 안에 진실로 신의 영광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의 위대함과 그의 선이 정신들에 의해서 인식되지 않고 찬미되지 않는다면, 신은 어떠한 영광도 가지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지혜와 능력은 도처에서 알려지는 데 반해 그는 원래 이 신적인 국가와 관련해서만 비로소 선을 갖는다. (86)

## 6.2. 신국의 정의로움

### 6.2.1. 자연의 왕국과 신국 사이의 조화

< 6-2-1-1> 우주는 이성을 가진 자율적인 정신들의 왕국과 이성을 갖지 않고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자연의 왕국으로 나누어 진다. 그러나 이성을 가진 정신들을 포함하여 전체의 우주는 보편적인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 신국은 전체 우주 안에 있는 한 부분이다. 그러나 신국을 포함하여 전체의 우주가 하나의 자연을 이루 수 있으려면 자연의 왕국과 신국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단자들 사이의 균원적인 예정 조화로부터 파생하는 또 다른 예정조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정 조화론에 따라 자율의 왕국의 질서와 자연의 왕국의 질서가 일치해야 한다면, 자율의 왕국 안에서 그 구성원들의 의지 자유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라이프니츠는 신이 예정 조화를 이루도록 두 세계의 질서를 부여할 때, 먼저 신국의 질서를 고려하고 자연의 왕국이 이에 순응하도록 배려하였다고 한다. 즉 신국 안에서 그 구성원들의 자유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면서 자연의 왕국을 이에 순응하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 6-2-1-1-1> 우리가 위에서 두 개의 자연적 왕국, 즉 작용인의 왕국과 목적인 왕국 사이에 완전한 조화를 확립한 것처럼, 여기서는 물리적인 자연의 왕국과 도덕적인 은총의 왕국, 즉 우주 기계의 기술

자로서의 신과 정신들로 이루어진 신적인 국가의 군주로서의 신 사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조화를 본다. (87)

### 6.2.2. 자연적으로 실현되는 정의

< 6-2-2-1> 신국과 자연의 왕국 사이의 예정된 조화는 자연적 질서에 따라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한다. 즉 신국의 통치자인 신이 인간의 선한 행위에 대하여 보상을 하거나 악한 행위에 벌을 주고자 할 때 자연 질서를 깨면서 개입하지 않고, 자연 질서를 따르면서 응분의 보상을 하고 벌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따르면 세계는 져절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라이프니츠의 낙관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연과정은 그 자체로 정의롭게 전개되어 나간다는 것이다.

< 6-2-2-1-1> 이 조화는 사물들이 자연의 경과를 통하여 스스로 은총에 이르도록 하고, 예를 들면 이 지구가, 어떤 정신에게는 벌을 주고 다른 정신에게는 보상을 주기 위하여 정신들의 통치가 요구될 때, 자연과정을 통하여 파괴되었다가 다시 복구되도록 한다. (88)

< 6-2-2-1-2> 그 밖에도 우리는, 건축사로서의 신은 입법자로서의 신을 모든 점에서 만족시키고, 따라서, 비록 이것이 항상 즉시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는 바로 자연의 질서와 사물의 역학적 구조 자체를 통하여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고, 마찬가지로 선한 행위는 육체와 관련하여 자연 과정을 통하여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89)

< 6-2-2-1-3>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전한 통치 하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떠한 선한 행위도, 벌을 받지 않는 어떠한 나쁜 행위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은 선한 사람들, 즉 이 거대한 국가 안에서 불만스러워 하지 않으며, 그들의 의무를 다한 후에 예견을 신뢰하고, 모든 선의 창조자를 정당하게 사랑하고 본받으며, 우리

로 하여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의 행복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는 진정하고 **순수한 사랑**의 본성에 따라, 그의 완전성을 바라보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의 복리를 위해 이바지해야 한다. (90)

### 6.2.3. 가능한 최선의 세계

< 6-2-3-1> 신국은 가장 정의로운 국가이다. 따라서 어떠한 선행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어떠한 악행도 처벌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신국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도덕성에 정비례하여 행복을 누리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도덕성은 각자가 이성을 통하여 인식한 신의 의지 또는 신의 명령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다. 신국의 모든 구성원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즉 신국에서 모든 구성원들은 신이 예정한 대로 의욕하고 행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따라 어떤 것을 의욕하고 행위할 수 있다. 그리고 예정된 조화를 구성함에 있어 신은 자연의 왕국에 앞서 신국의 구성원들의 의지를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자연 필연성에 종속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신국의 구성원들은 각자가 이성에 따라 판단한 신의 선행하는 의지에 따라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실제로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신국의 신민들은 무엇보다 완전한 신을 사랑하고, 진정한 사랑이란 자기가 사랑하는 상대의 행복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은 신국 신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따를 때 기쁨을 느끼므로,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의 의지에 따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국의 신민들은 미래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의 의지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른 구성원들의 의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의지가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신은 모든 구성원들의 의지를 고려하여 서로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전체의 완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자기의 의지

가 실현되지 못한 사람들도 신이 더 나은 세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기의 의지를 실현시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신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6-2-3-1-1>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전한 통치 하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떠한 선한 행위도, 벌을 받지 않는 어떠한 나쁜 행위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은 선한 사람들, 즉 이 거대한 국가 안에서 불만스러워 하지 않으며, 그들의 의무를 다한 후에 예견을 신뢰하고, 모든 선의 창조자를 정당하게 사랑하고 본받으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의 행복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는 진정하고 순수한 사랑의 본성에 따라, 그의 완전성을 바라보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의 복리를 위해 이바지해야 한다. 이것이, 지혜롭고 덕 있는 사람들이 신의 추측할 수 있는 의지, 또는 선행하는 의지와 일치하는 듯이 보이는 모든 것에 종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그의 알려지지 않고, 후속하며, 결정하는 의지를 통하여 실제로 일어나도록 한 것에 만족하는 이유이다. 즉 그들은, 우리가 우주의 질서를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의 모든 소망을 능가한다는 것과, 일반적인 전체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건축사와 우리 존재의 작용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의지의 전 목적이어야만 하고 홀로 우리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의 주인과 최종 목적으로서의, 전체의 창조자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승복하는 경우에, 특히 우리들 자신과 관련하여 이 세계를 현재의 세계보다 더 잘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90)

## 참·고·문·현

- Leibniz, W., Leibniz Werke. Bd. I-V2, hrsg. u. übers. von Hans Heinz Holz, Darmstadt: 1985.
- \_\_\_\_\_, Die philosophischen Schriften von G. W. Leibniz. Bd. I-VII, hrsg. von C. J. Gerhardt, Hildesheim: 1965. (GPh)
- \_\_\_\_\_, Fragment zur Logik. Ausgewählt, übersetzt und erläutert von Franz Schmidt, Berlin: 1960. (Schmidt)
- \_\_\_\_\_, Nouvelles lettres et opuscules inédits de Leibniz, par A. Foucher de Careil, Paris: 1857. (FC)
- \_\_\_\_\_, Vernunftprinzipien der Natur und der Gnade/Monadologie, Hamburg 1982.

## 윤 선 구(尹善九)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쾨른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국대, 성공회대, 서울대 등에서 강사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근대철학회 부회장, 사회와 철학연구회 연구기획위원 및 편집위원,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저로 『서양근대철학』 (창작과비평사, 2001), 역서로 『아젠다 21』 (생각의 나무, 2000), 공역 『철학의 거장』 II, IV 권 (한길사, 1999) 등이 있고, 논문으로 Die Freiheitstheorie von Leibniz (Koeln, 1997), 「라이프니츠에서 의지자유문제와 단자론」, 「라이프니츠의 자유개념」, 「현상세계의 형이상학적 근거」, 「실천철학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라이프니츠의 로크비판에 관한 연구」,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에 있어 가능성개념과 자유」 등이 있다.

## 『철학사상』 별책 제3권 제13호

---

발행일 2004년 6월 10일

발행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E-mail: philinst@plaza.snu.ac.kr

전화: 02) 880-6223

팩스: 02) 874-0126

출판 도서출판 관악 02) 871-2118, 878-2117

---



9 788991 280175

ISBN 89-91280-17-X